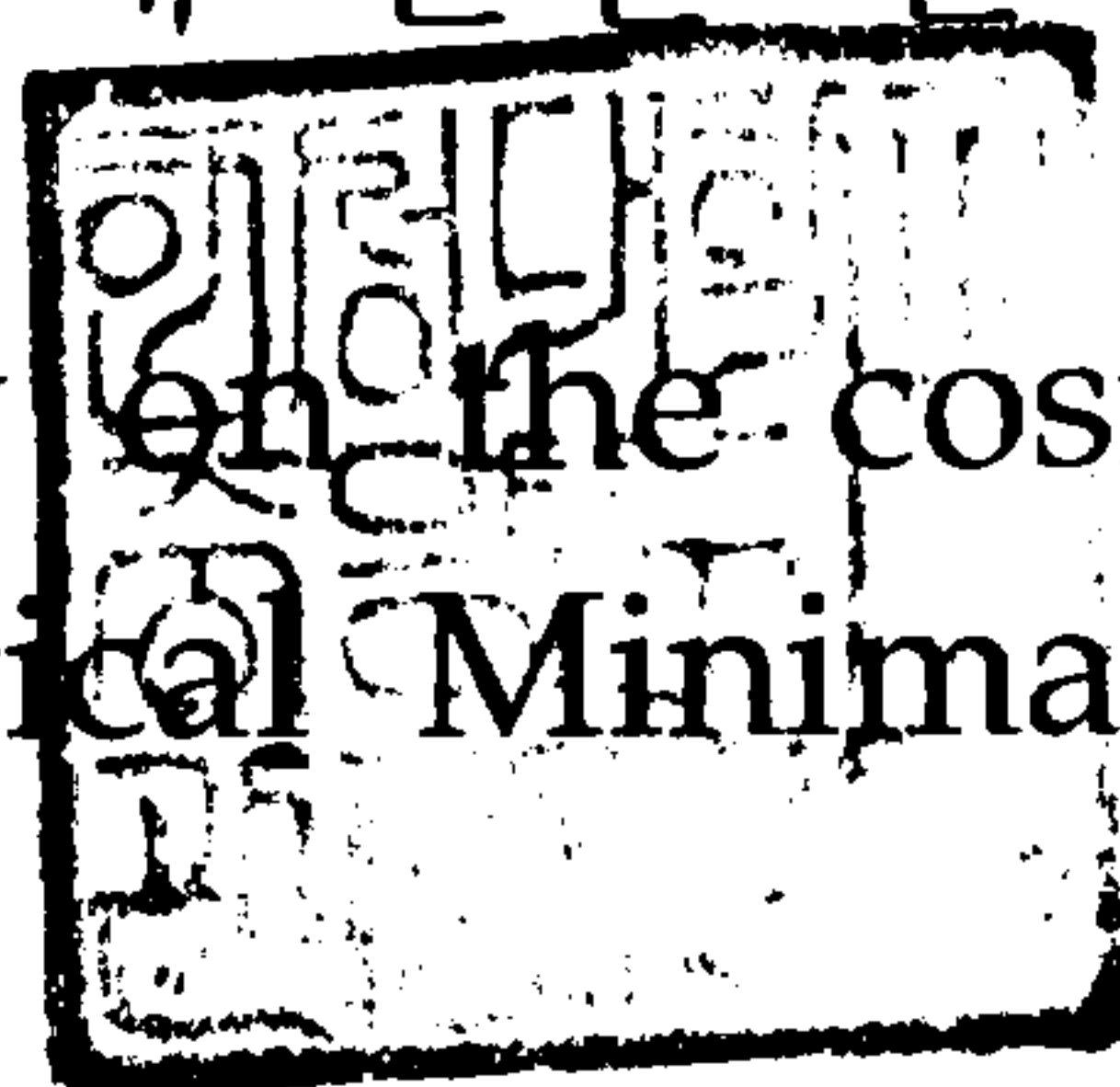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張 邨 植

미니멀리즘을 활용한
화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smetic
in practical Minimalism



2000年 8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李 叔 妍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張 郇 植

미니멀리즘을 활용한
화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smetic
in pratical Minimalism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0년 8월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李 叔 妍

李叔妍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0년 8월

審 査 委 員 長

印

審 査 委 員 長

印

審 査 委 員 長

印

目 次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II. 예술과 담장에 있어서의 미니멀리즘	5
1. 예술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5
2. 담장(淡粧)에 표현된 미니멀리즘	15
III. 한국화장에 표현된 미니멀리즘	29
1. 형에 의한 표현(1900년대~1950년대)	29
2. 선에 의한 표현(1960년대 ~현대)	37
IV. 작품제작에 있어 미니멀리즘의 활용	52
1. 작품기획의 배경	52
2. 작품기획 및 활용	53
V. 결론	72
참고문헌	75
ABSTRACT	79

그림목차

[그림1] 캐시미르 말레비치, 절대주의, 1915	7
[그림2] 마르셀 뒤샹, 샘, 1917	7
[그림3] 리하르트 아르트슈바거, 의자, 1966	8
[그림4] 아르날드 포모도르, 입방체, 1965-1975	9
[그림5] 도널드 주드, 무제 1968	10
[그림6] 토니 크래그, 새로운 돌-뉴턴의 색조, 1987	11
[그림7] 피엣 몬드리안, 타원형, 1914	11
[그림8] 막스 빌, 끝없는 표면, 1953-1956	11
[그림9] 로버트 모리스, 무제, 1966	12
[그림10] 요셉 엘버스, 사각형에 대한 존경-가을 향기, 1964	13
[그림11] 딘 플래빈, 형광등의 배열, 1972	14
[그림12] 도널드 주드, 무제, 1972	14
[그림13] 칼 안드레, 구리-알루미늄 평원, 1969	15
[그림14] 프랭크 스텔라, 텔루드 화합물, 1960-1961	15
[그림15] 신윤복, 미인도	18
[그림16] 작자미상, 미인도	18
[그림17] 작자미상, 미인도	18
[그림18] 신윤복, 단오풍정	19
[그림19] 청화백자 분합	25

[그림20] 돌 분합	25
[그림21] 웅장성식	26
[그림22] 제용신, 운량자 상	28
[그림23] 작자미상, 미인도	28
[그림24] 하연부인상	28
[그림25] 김홍도, 미인화장	28
[그림26] 명성황후 민비	29
[그림27] 영친왕 내외	31
[그림28] 분 광고	32
[그림29] 박가분	32
[그림30] 1950년대 화장품 광고	35
[그림31] 눈 화장법, 향장, 1979, 3월호	41
[그림32] 키메라 화장, 중앙일보, 1985년	44
[그림33] 여성계 표지 화장, 1957년, 신년호	49
[그림34] 여성계 표지 화장, 1958년, 1월호	49
[그림35] 여성계 표지 화장, 1956년, 7월호	49
[그림36] 여원 표지 화장, 1963년	49
[그림37] 여원 표지 화장, 1965년, 7월호	49
[그림38] 여성중앙 표지 화장, 1970년대	50
[그림39] 여성중앙 표지 화장, 1970년대	50
[그림40] 여성중앙 표지 화장, 1970년대	50
[그림41] 1970년대 화장품 광고5	50

[그림42] 1970년대 화장품 광고	50
[그림43] 1970년대 화장품 광고	50
[그림44] 영레이디 표지 화장, 1980년대	51
[그림45] 멋 표지 화장, 1980년대	51
[그림46] 멋 표지 화장, 1980년대	51
[그림47] 여성동아 표지 화장, 1990년대	51
[그림48] 레이디경향 표지 화장, 1990년대	51
[그림49] 작품 I 일러스트	54
[그림50] 작품 I	55
[그림51] 작품 II 일러스트	57
[그림52] 작품 II	58
[그림53] 작품 III 일러스트	60
[그림54] 작품 III	61
[그림55] 작품 IV V 일러스트	63
[그림56] 작품 IV	64
[그림57] 작품 V	65
[그림58] 작품 VI 일러스트	67
[그림59] 작품 VI	68
[그림60] 작품 VII5	70
[그림61] 작품 VIII	71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롭고 환상적인 것들로 가득찬 신비한 세상이 올 것 같은 기대와 흥분에 가득찼다. 세기초의 현상으로 기존의 가치관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주의(ism)가 복잡하고 미묘하게 작용한 까닭이다.

한 시대의 문화나 예술은 시대의 반영물로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받는다. 예술, 사회, 문화, 경제는 언제나 맞물려 작용해 왔다. 디자인의 경우도 환경이나 가치관, 그리고 예술양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려 하는 화장문화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패턴, 미감(美感), 도덕, 습관, 가치기준 그리고 사회구조와 관련지워져 변천되어온 것이다. 화장문화는 건축, 문학, 음악, 회화, 조각과 같이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술형태이고 그것이 창조된 당시 사회의 요구와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화장문화는 한시대의 경험적 산물로, 화장은 인체위에 그려지는 시각적 공간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장대 앞에선 모든 여성은 자연이 불완전하게 남겨 놓은 것을 완성하는 예술가가 될 수 있다.”¹⁾라고 아리스토 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화장은 그자체가 예술이다. 예술에서 나타난 다양한 표현 방식들은 화장에 여러 가지의 요소를 제공하면서 개성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들 예술 양식에 따른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화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19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예술 분야에서 단순성, 순수성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이 등장하였다. 특히 조형예술분야에서 미니멀리즘이란 형태와 윤곽 그리고 모양을 더 이상

1) 이은희, 신세대 화장법(미용백과), 등지, 1994, p.21.

축소할 수 없는 최소단위로 만든 예술사조이다. 미니멀리스트들은 산업현장에서 쓰는 생산방법을 사용하여 도판과 규격을 정하고 나무로 색칠한 모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서구의 미니멀리즘이 한국 미술에서 변형된 모양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중반이다. 한국 모더니즘 미술의 성격규정에 있어 강한 논리성을 띠고 대두한 이 경향의 미술은 흔히 단색 회화(모노크롬 회화)라고 불렸다. 단색의 화면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소박함과 단아함을 두고서 일부 평론가들은 '한국적 자연주의의 심성이 현대적 어법으로 승화된 것'²⁾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생활방식이 다양해질수록 그 속에 사는 인간의 시각은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의 매스 미디어의 쉴새 없이 퍼부어 대는 엄청난 양의 이미지의 홍수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요인들은 화장문화 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단순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었다.

단순성과 순수성의 추구를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는 미니멀리즘은 한국의 화장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형미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큰 만큼 한국화장의 전통양식을 현대 화장에서 조화롭게 재창조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그동안 여겨졌다.

미니멀리즘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니멀리즘의 의미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³⁾ “현대 미술에 있어서 Minimal조각에 대한 연구”⁴⁾ “미니멀 아트에 있어서 반복성과 장식성에 관한 연구”⁵⁾ “미니멀 아트에 대한 연구”⁶⁾ “현대 복식에 표현된 미니멀리즘에 대한 연구”⁷⁾ “미니멀리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⁸⁾ “현대패션에 표현된 미니멀리즘에 관한 연구”⁹⁾

2) 브리태니커 세계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1993, p.264.

3) 하민수, 미니멀리즘의 의미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86.

4) 김미덕, 현대 미술에 있어서 Minimal조각에 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3.

5) 이선영, 미니멀 아트에 있어서 반복성과 장식성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 석사논문, 1996.

6) 박지현, 미니멀 아트에 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6.

7) 임진희, 현대 복식에 표현된 미니멀리즘에 대한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1993.

8) 변지연, 미니멀리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성신여대 석사논문, 1996.

등 미술에 나타난 미니멀리즘과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에 관한 논문들이 있다. 이에 비해 미니멀리즘과 화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니멀리즘의 발생 배경과 개념 그리고 구조적 특성에 관한 고찰을 통해 미니멀리즘의 특성들을 고찰하고 나아가 한국화장의 조형성과 미적 특징을 규명하여 미니멀리즘 특성과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화장문화는 그 나름대로의 양식을 가지고 변화를 보이며 발전하였다. 화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화장의 독자적인 변천이기 보다는 외모를 이루는 모든 요소와 함께 각 시대의 미의식을 반영하여 표현 방법을 달리해 왔다.

얼굴은 특히 성별, 연령, 건강의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이자 커뮤니케이션이다. 화장에 의해 자신의 외모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보고 행복해 하며,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여 자신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잘 파악한다. 그 다음 수정하고 손질함으로써 심리적인 안도감과 안정을 얻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화장이다.

이렇게 하여 얻어지는 심리적인 효과, 즉 자기 이미지가 더욱 좋아짐에 따라 얻어지는 부가적인 가치는 생산적이고 삶에 의욕을 불러일으켜 준다. 그러나 매력이 겉모습에만 국한되는 것보다는 내적인 충실함에서 우러나오는 매력을 동반한 참된 아름다움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범위는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였고, 본론의 첫 장에서는 조형예술 분야에 있어 미니멀리즘의 발생 배경 및 구조적 특성에 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장에서 나타나는 미니멀리즘을 살펴보고, 내면의 미와 외면의 미에 관해

9) 김정아, 현대패션에 표현된 미니멀리즘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99.

규명하고자 했다.

다음 두 번째 장에서는 한국화장에 표현된 미니멀리즘을 각 시대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 화장의 표현 형태를 살펴보았다. 즉, 1900년부터 1950년대까지는 미니멀리즘에서 나타나는 형에 의한 표현 수단으로 1960년부터 현재까지는 선에 의한 미적 가치의 표출로서 화장의 변천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세 번째 장인 연구방법에서는 미니멀리즘의 활용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실물 작품 8점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잡지나 광고에 제시해 평가를 듣고 있다. 미니멀리즘의 특성인 색채의 단일화, 비관계적 구성에 있어서 반복적인 표현기법을 보완, 새로운 기획제작을 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 방법으로는 미니멀리즘의 이론적 배경의 선행 연구문헌과 예술사와 예술비평 서적들을 참고하였고, 화장에 관한 문헌 및 인간의 얼굴과 신체에 관련된 문헌 자료 및 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 외 관련된 잡지 및 인터넷 등에 수록된 사회 문화적인 연구와 여성학 관련자료도 참고하였다. 정확한 설명을 돕기 위해 사진자료와 함께 미니멀리즘의 특성을 살린 작품 제작하였다.

II. 예술과 담장에 있어서의 미니멀리즘

본 장에서는 먼저 화장에서의 미니멀리즘 표현 기법을 분석하기에 앞서 조형예술의 미니멀리즘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순하고 절제된 특징인 미니멀리즘을 활용한 화장문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예술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1) 미니멀리즘의 발생과 확산

세계 2차 대전이 진행 중이던 유럽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전반적으로 혼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예술가들이 그들의 활동 무대로 선택한 곳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과학적으로는 최첨단의 기술,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안정적인 미국 뉴욕이었다. 유럽의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진출함으로써 유럽의 새로운 미술을 받아들여 미국의 현대미술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으며 미국은 현대미술의 진원지가 되어 다양한 경향의 미술운동을 전개하였다.¹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산업사회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로인하여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전체로서의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풍요로운 대량 생산을 통해 산출되는 과잉산업의 급속한 발전, 기계문명과 테크놀로지의 발달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조형으로 이르는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량 생산체제와 이에 대응하는 문화적 다양성의 노력들은 미니멀리즘의 태동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풍요로운 시대의 미국 미술운동은 이성적으로 차분히 시대 상황과 자신을

10) 로즈메리 램버트(이석우역), 20세기 미술사, 열화당, 1986, pp.85-86.

돌이켜 볼 여유를 갖게 된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본질 탐구가 이루어지고 격정적 몸부림으로 부터가 아닌 냉철한 자기 반성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조명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예술 속에서 어떠한 감정이나 정서를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무관심하고 기계적 형식으로 축소되어지면서 미니멀리즘이 시대와 더불어 탄생하게 된다.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후반 미국 화단의 지배적인 세력이었던 추상 표현주의의 반동으로 일어났다. 극도로 단순한 형태의 표현과 개관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하며 미니멀 아티스트들은 자기 표현은 곧 예술이라고 하는 종래의 예술개념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들은 엄격하고 비개성적이며 극단적 간결성과 기계적인 엄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하학적인 예술형태를 구성하고자 노력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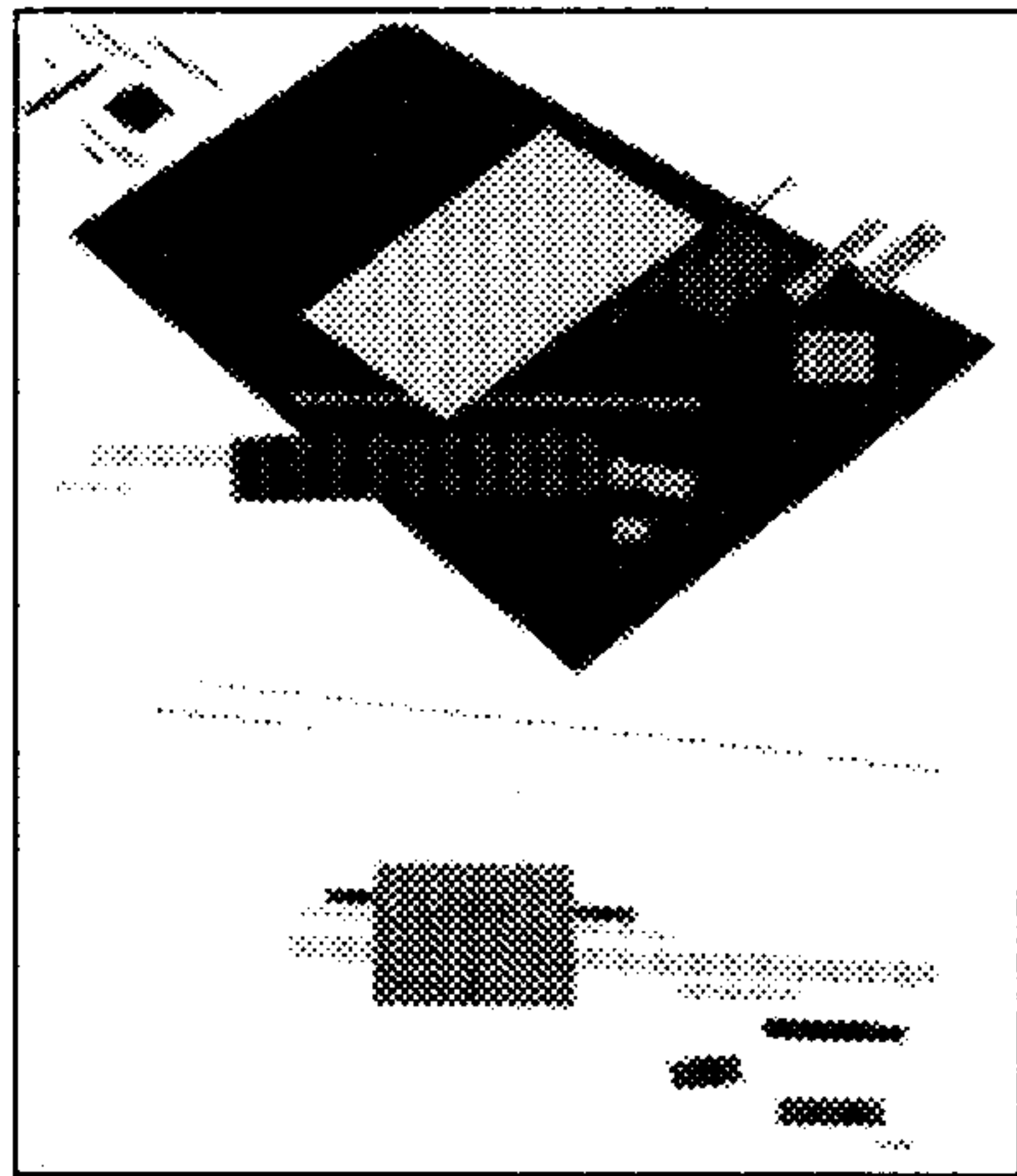
그러나 미술사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의 발생사원은 그 이전으로 소급해 올라갈 필요가 있다. 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예술을 시도한 첫 번째는 1913년 캐시미르 말레비치(Kashimir Malevich)가 '흰바탕에 검정색 사각형(A Black Square on White Ground)'을 그림으로써 최초의 절대주의 구성¹²⁾을 이룩하였다.[그림1]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이 레디메이드(ready-made)인 〈샘(La Fontaine)〉[그림2]이라는 이름으로 남자 소변기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거의 때를 같이하여 뒤샹은 예술대상이라는 개념을 철폐하고 일상 오브제와 예술품의 혼선을 조장하여 미학적 규범을 무너뜨리려 했다. 말레비치는 예술이 복합적이어야 한다는 관념의 철폐를 외쳤다는 점에서 미니멀리즘의 선구적 조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니멀 아트'란 명칭은 영국의 비평가 리처드 볼하임(RichardWolheim)이 1965년 『아트 매거진(Art Magazine)』지에 발표한 「미니멀 아트(Minimal Art)」¹³⁾라는 글에서 처음 쓰여진 이래 보편화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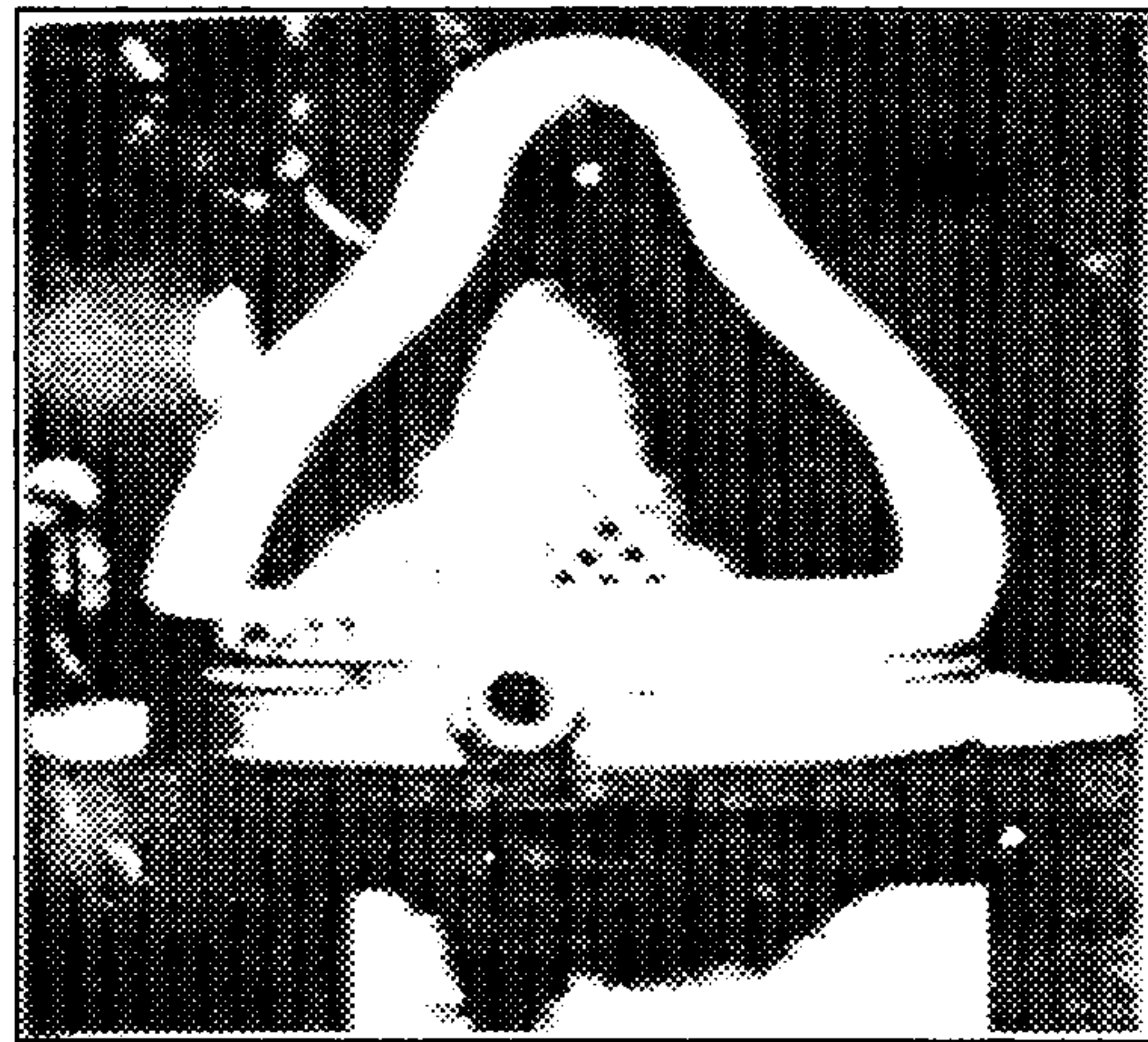
11) 브리태니커 세계백과사전, 서울: 한국 브리태니커, 1993, pp.263-264.

12) 1913년 Malevich가 주창한 운동으로 어떤 감정이나 연상을 배제하고 '순수미술'을 추구하기 위해 단순한 기하학적 형상을 사용하고 있다.

13) 20세기의 특수한 예술적 동향을 논한 논문의 제목.



[그림1] 말레비치, 절대주의



[그림2] 마르셀 뒤샹, 샘

'minimalism'의 어의를 살펴보면, 옥스퍼드 사전에는 'very minute, the least possible'¹⁴⁾, 웹스터 사전에는 'smallest possible'¹⁵⁾, 이라고 각각 정의되어 있다. 이는 '최소의 혹은 극소의'라는 뜻으로 'Minimal Art'¹⁶⁾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소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미니멀리즘을 대신할 수 있는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ABC Art', '특수한 오브제(Specific Objects)', '기본구조 미술(Primary Structure)' '차가운 미술(Cool Art)'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14) The New Oxford Dictiona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1080.

15) Webster's Dictionary, ed. John Gage Allee, Ottenheimer Publishers, p.1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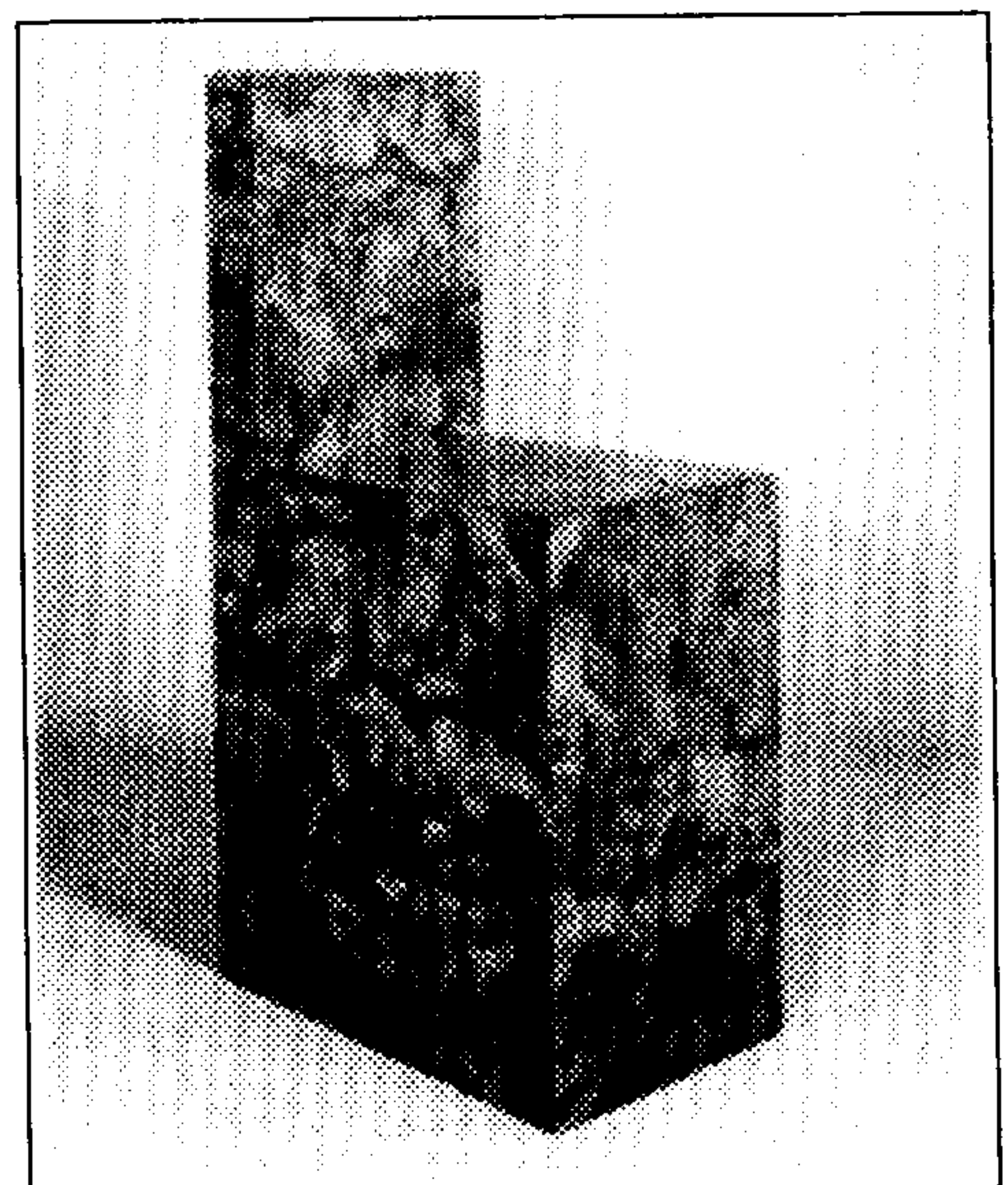
16) 형태, 색채를 되도록 간결하게 꾸밈없이 하는 조형예술, 특히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무기적(無機的)인 스타일로 조형한 추상 회화, 조각, minimalism 이라고도 함, 영한 대사 전, 금성출판사, 1992

‘ABC Art’는 바바라 로즈(Babara Rose)가 미니멀 아트의 개념과 성격을 정의한 1965년의 에세이에서 알파벳을 “반복해” 놓은 것 같은 “무미건조한” 반복이라는 의미로써 칭한 것이다. 이는 동일한 단위를 비관계 적인 구성으로 무표정하게 반복하는 미니멀 아트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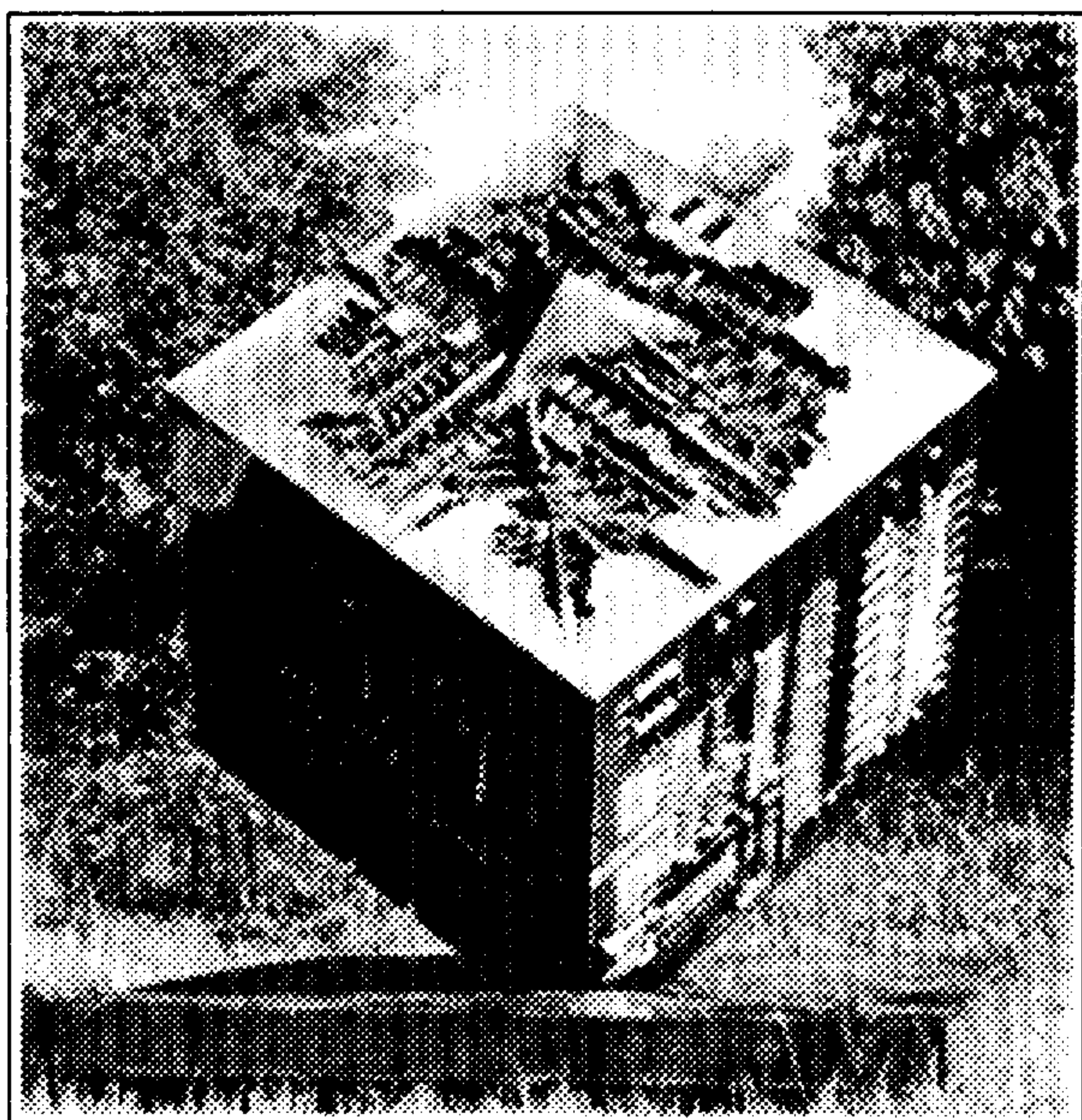
‘특수한 오브제(Specific Objects)’라는 명칭은 대표적인 미니멀 작가였던 도널드 쥬드(Donald Judd)가 1965년 『미술연감(Art Yearbook)』에 기고한 글에서 강력한 환원성(reduction), 단일성(oneness), 그리고 새로운 재료의 사용과 공업제품들을 수용한 미니멀 아트를 칭한 데서 비롯됐다. 특수한 오브제(Specific Objects)란 제한된 공간이라는 특수한 장소를 차지하는 단순한 3차원적 물체로서 성격을 벗어난 일종의 존재로서의 자율성을 지니게 되었다. 관객에 의해 지각되기를 요구하는 ‘지각적 대상’으로 물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본 구조 미술(Primary Structure)’은 전시회를 기하여 붙여진 명칭들로 역시 미니멀 아트의 성향을 대변하는 것이다. 미니멀 조각 전시 기획전에서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 주로 기본적인 형태 원통, 원형, 입방체, 각주(角柱)이며, 소재는 주로 금속, 나무, 플라스틱 등이고 모두 채색되어 있으며, 작품의 스케일은 건축적으로 되어 환경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Cool Art’의 경우 ‘차갑다’ 또는 ‘춥다’라는 형용사는 감각이나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지성에 호소하므로 무관심, 엄격함, 합리성, 비인격성, 금속 등과 같은 성질을 지닌 다양한 형식의 예술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Cool Art’는 날카로운 윤곽이나 형식 그리고 반복적인 구조와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3] 리하르트 아트슈바거 의자



[그림4] 아르날도 포모도로, 이방체

위에서 설명한 미니멀 아트와 관련된 여러 명칭들의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미니멀 아트의 목적은 전통적인 조각이나 회화의 개념과는 달리 최소한의 제작과정을 거쳐 사물의 존재 즉 본질을 직접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니멀리즘은 표현의 주관성을 억제한 미니멀 아트를 통해 원소처럼 궁극적으로 남게 되는 본질적 요소 또는 본질 개념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오브제(Object)를 그 성분적 요소에 까지 환원하여 보려는 특징을 지닌 예술의 경

향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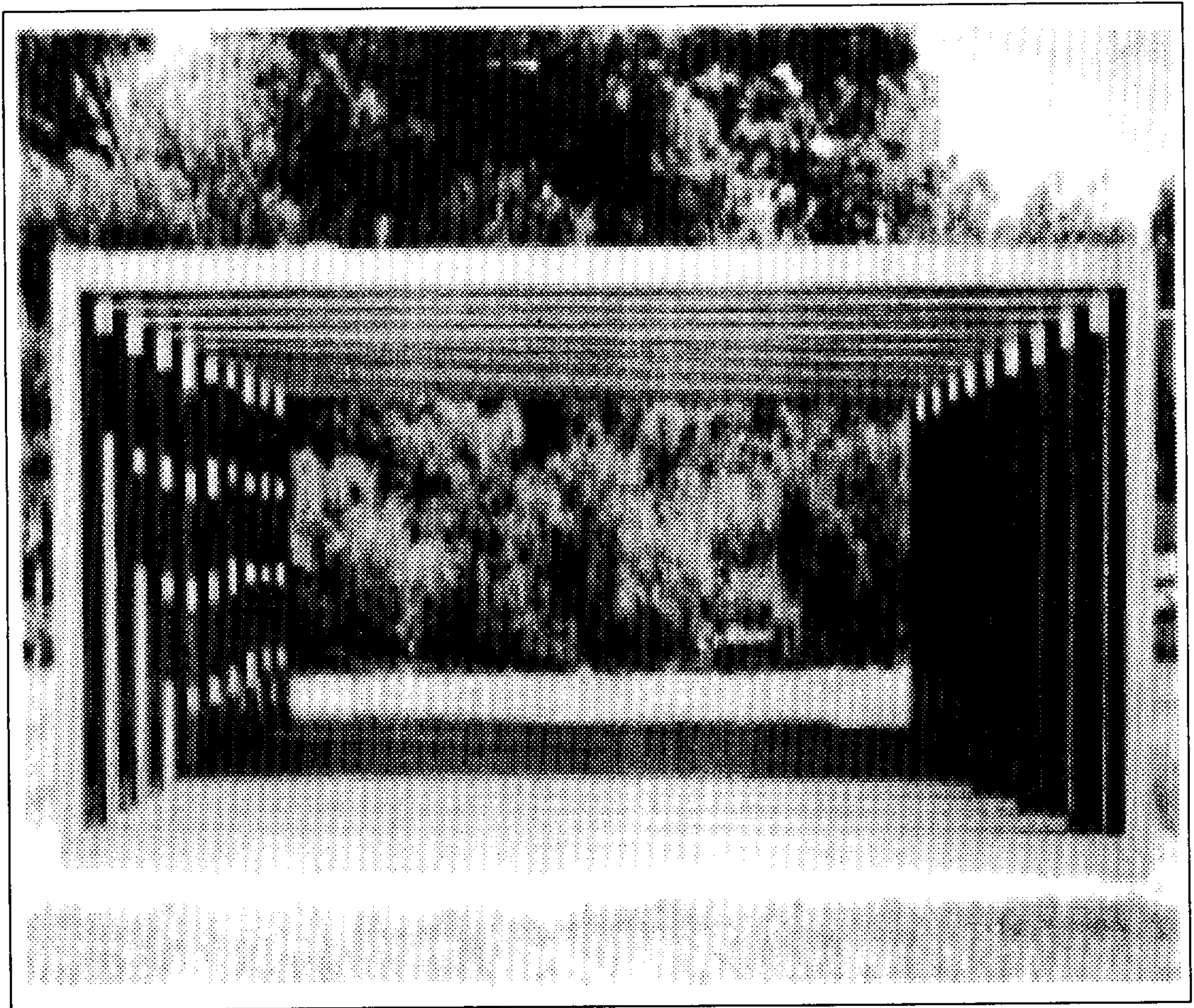
이는 전통적으로 미술의 제작에 소용되었던 많은 요소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보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예술의 본질, 예술적 체험의 본질로 향하는 시각을 열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미니멀 아트의 특성은 이미지의 문학적 의미 내지 심리학적 의미와 같은 미술대상의 '내부'보다는 미술대상의 물리적 배경이나 관찰자의 반응이라는 미술대상 '외부'에 내용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역사의 파괴와 인간의 참해 그리고 인간의 망각에 반하는 미적 가치의 범위를 보존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술의 의미를 단순히 천재적 개인의 것이 아닌 사회적 질서의 창조물로 보게 하는 예술의 힘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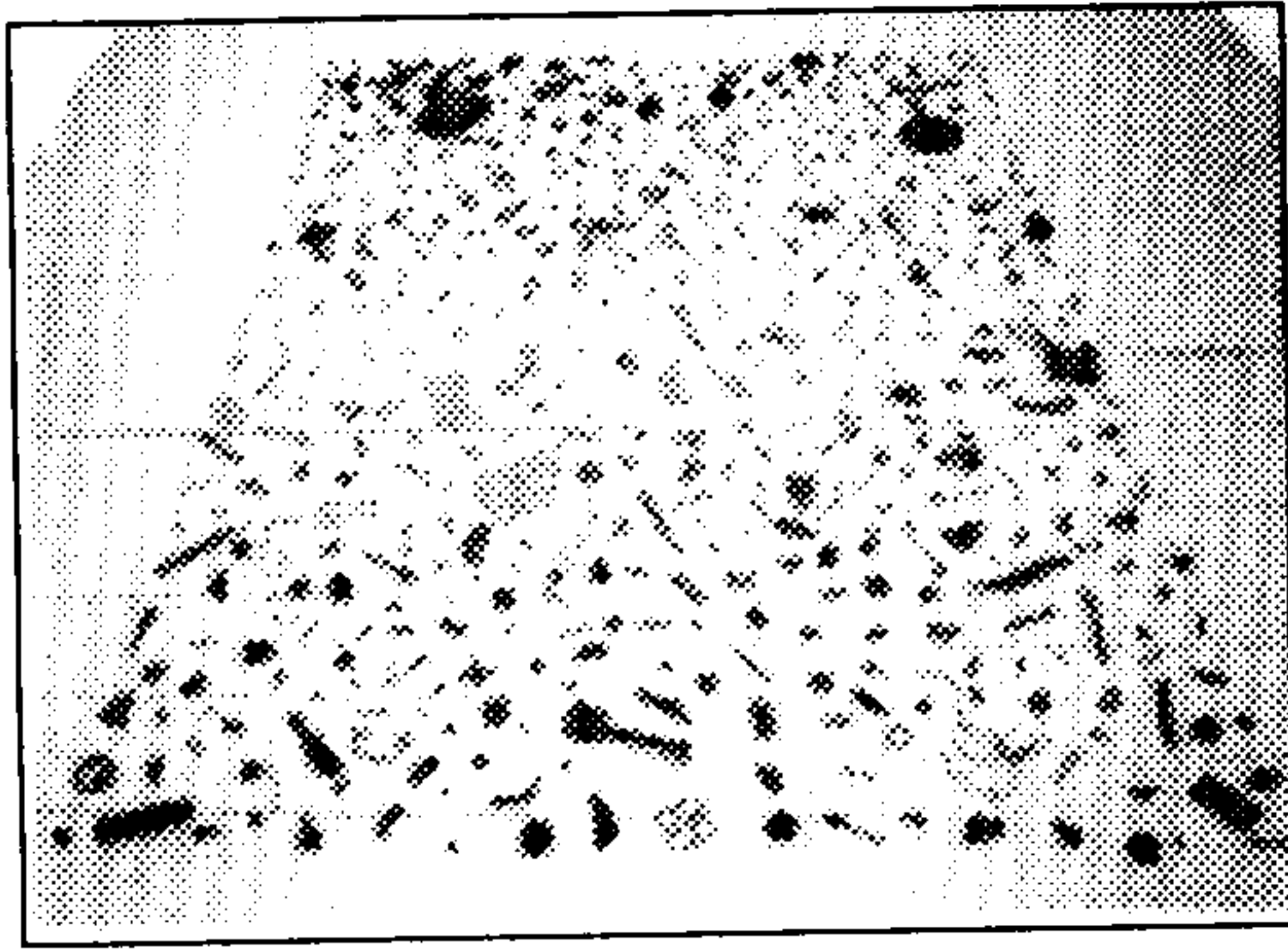
17) 케네시 베이커, 앞의 책, pp.83-84.

18) 박은경, 현대미술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의 근원적 특성과 그 위상, 숙명여자 대학 석사논문, 1990,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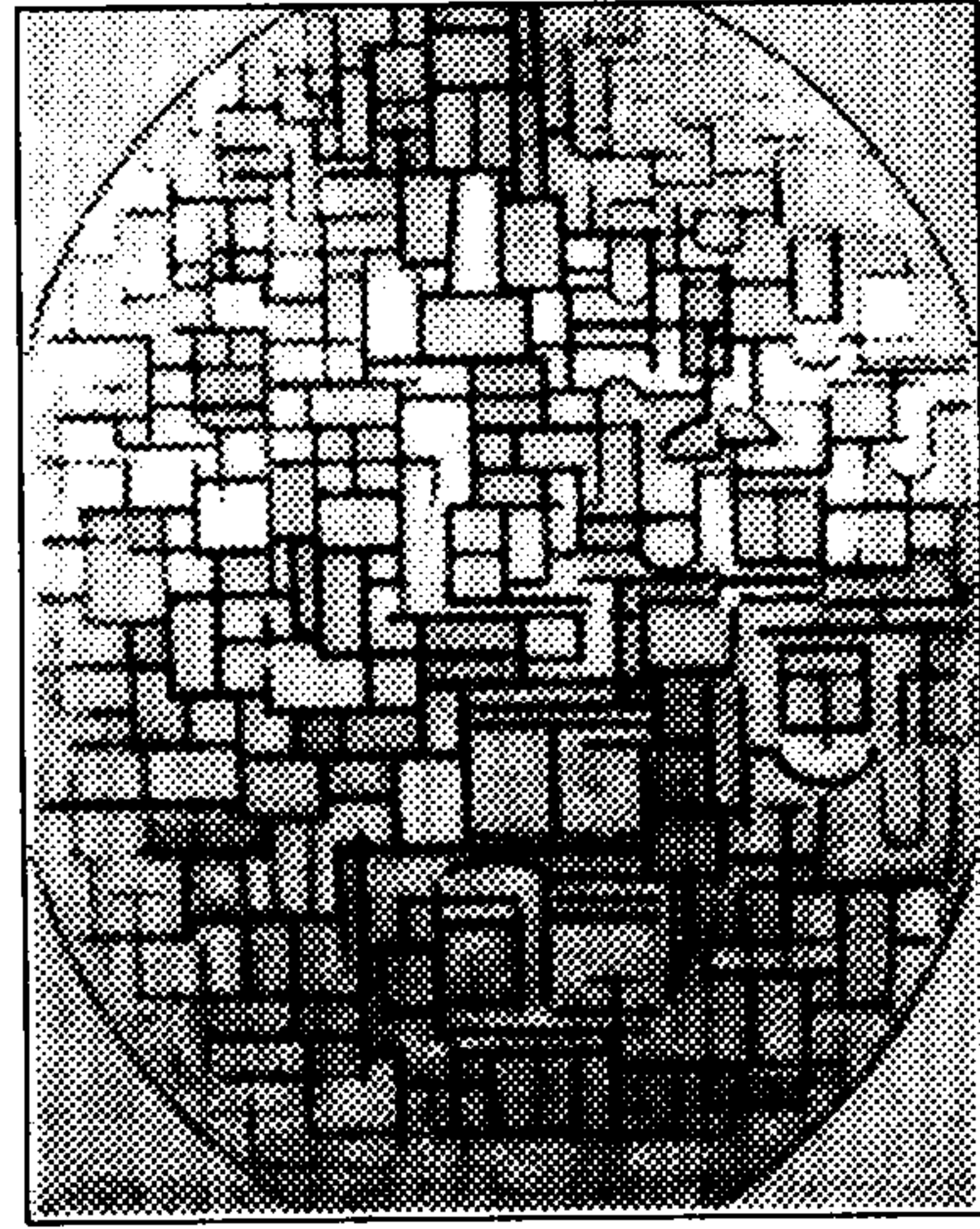
미니멀리즘은 기존의 미술이 새로운 미술로 나아가는데 있어 가능성 영역과 논리를 제공한 획기적인 예술 양식으로 어떤 재현적 요소나 장식적 성격으로부터 벗어난 예술을 위한 예술과 같은 순수주의에의 표명이기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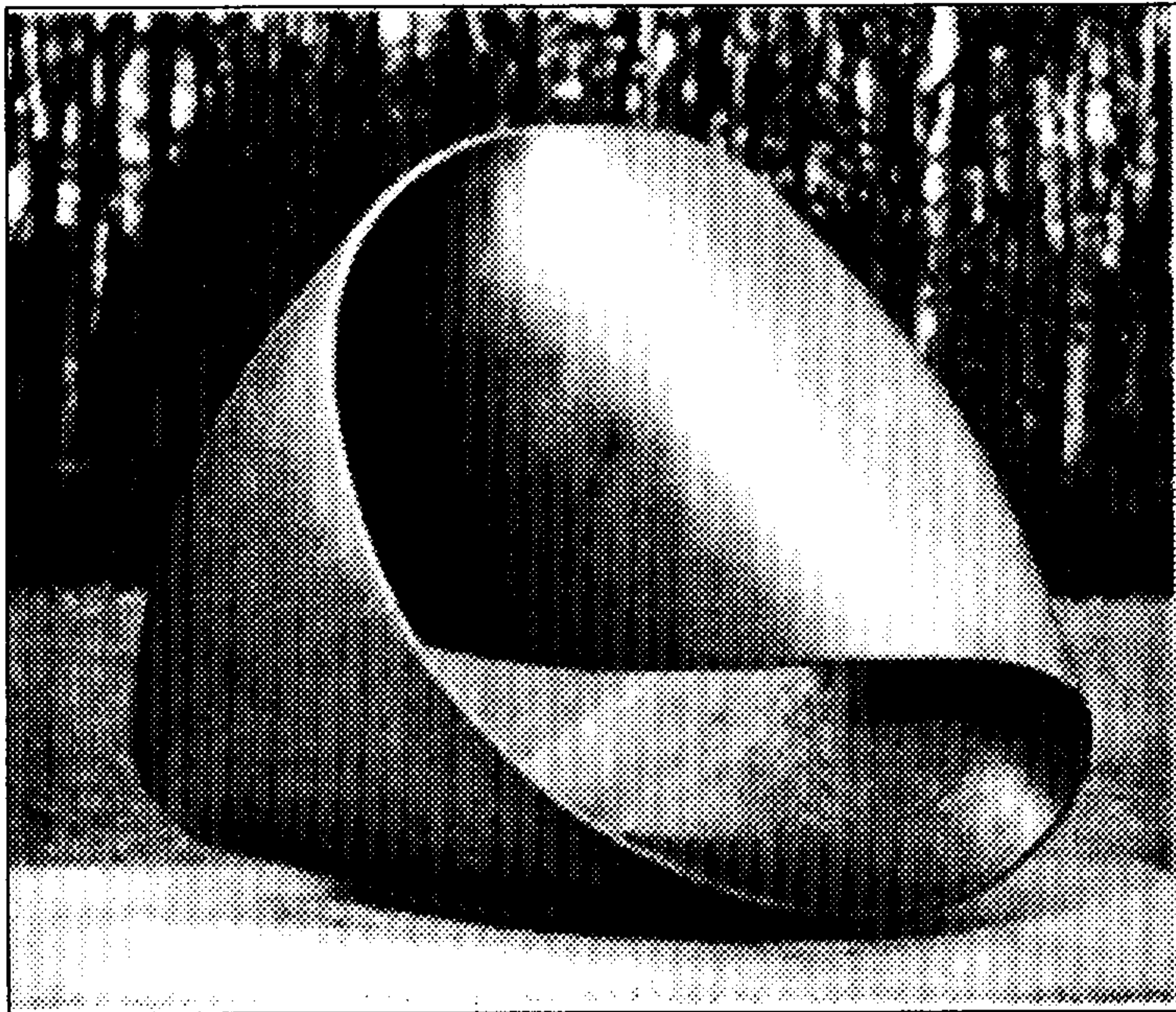
[그림5] 도널드 주드, 무제



[그림6] 토니 크래그, 새로운 돌



[그림7] 피엣 몬드리안, 타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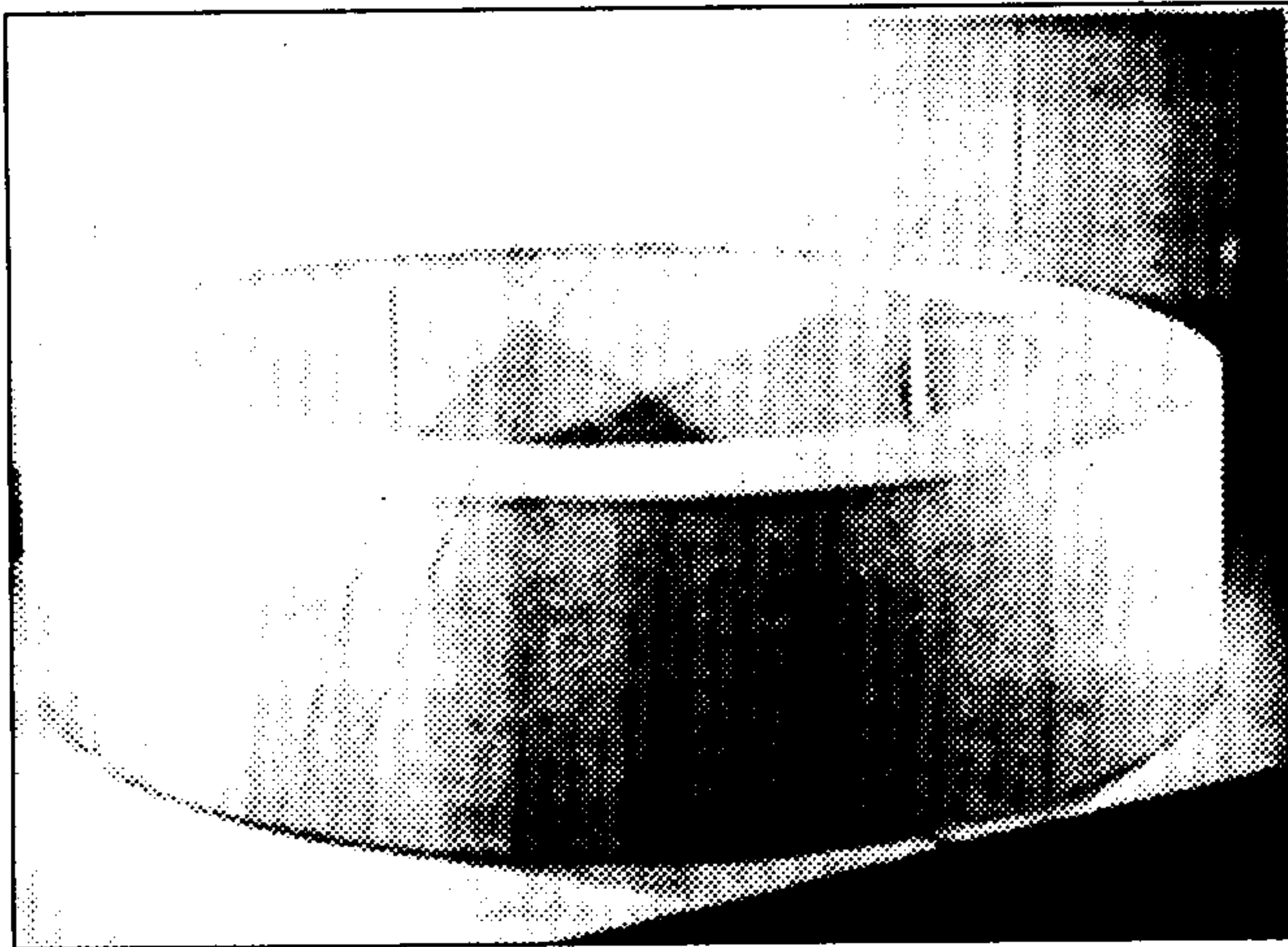
[그림8] 막스빌, 끝없는 표면

2) 미니멀리즘의 조형적 특징

미니멀리즘의 정의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몇몇 서적이나 저널에서 미니멀리즘 작가나 미술비평가들이 여러 가지 단어로 정의를 내린바 있다. 즉 근원성, 환원성, 비내부성, 기하학적성, 명료성, 단순성, 순수성, 엄격성, 실체성, 환경성 등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본 항에서는 이러한 단어들로 묘사된 미니멀 아트의 조형적 특성을 단순성, 명료성, 대칭성, 비관계적 구성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① 단순성



[그림] 로버트 모리스, 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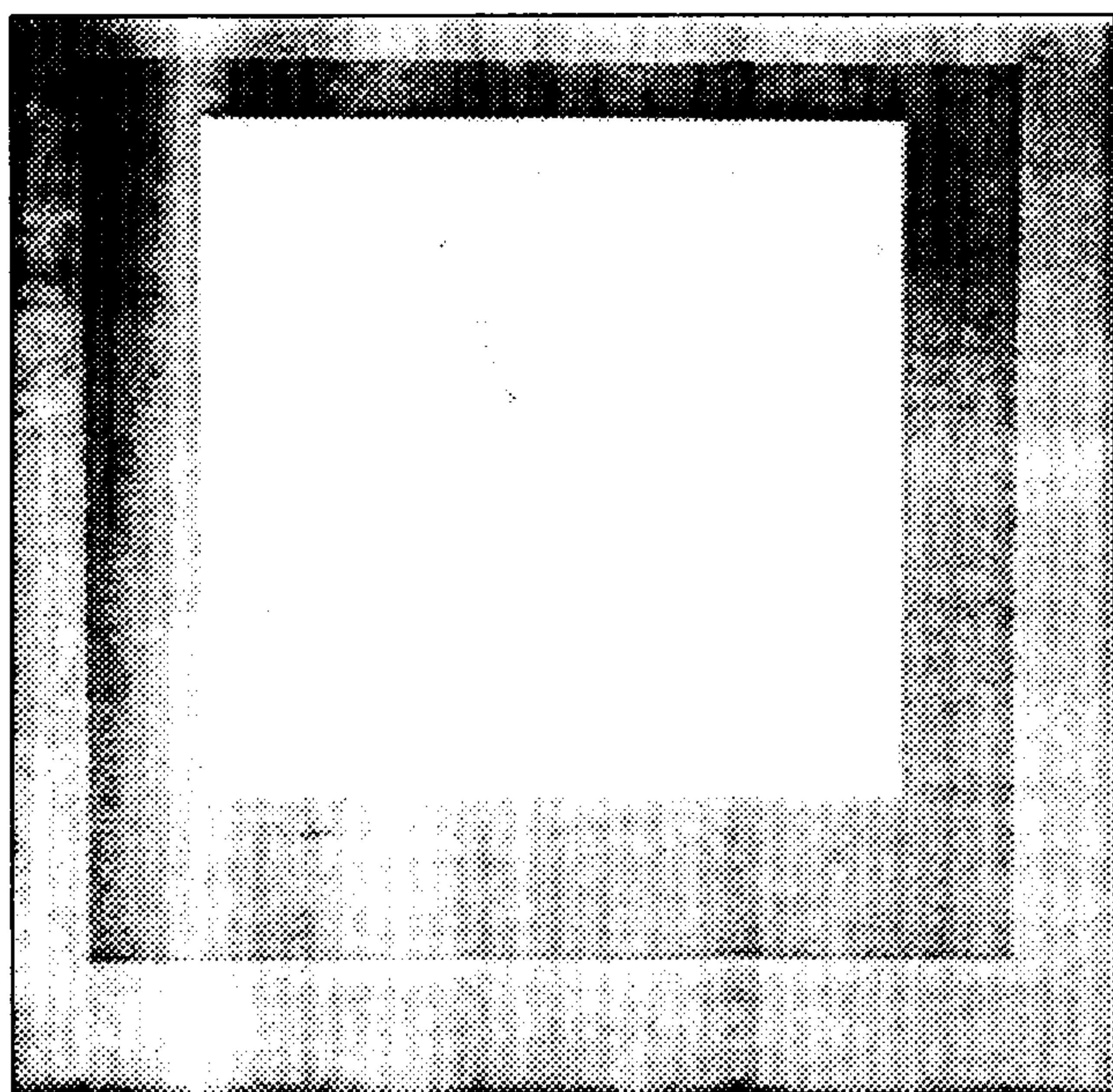
단순성은 미니멀 아트의 조형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로서, 형태의 단순화는 본질 추구의 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모리스(Morris)는 단일형태에 대해 조각의 고유한 특성인 크기(Scale), 비례(Proportion), 형태(Gestalt), 부피(Mass)등이 서로 분화된 느낌을

주지 않은 채 강력한 형태적인 느

낌을 줄 수 있는 단순한 형태, 즉 불규칙적인 다면체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형태의 단순성이 반드시 경험의 단순성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복잡성이 반드시 내용의 풍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복잡한 현상이나 패턴을 볼 때 그것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구조를 파악하려는 인간 심리는 단순화에서 온다는 것이다.

② 명료성



[그림10]하드에지회화-가을향기

요셉 엘버스, 사각형에 대한 존경

미니멀리즘의 조형적 특징인 명료성은 명확한 형태와 명백한 경계선을 지닌 하드 에지(Hard Edge) 회화에 나타난다. 하드 에지 회화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반복한 것이 주류를 이루며 기하학적인 형태로 인하여 명료성, 엄격성을 지닌다. 하드에지 회화 작가들은 3차원의 오브제(Objects)를 2차원인 캔버스에 표현함으로써 생기는 일루전¹⁹⁾을 거부하고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하였다. 보는 사람의 직접적이고 순수한 시각적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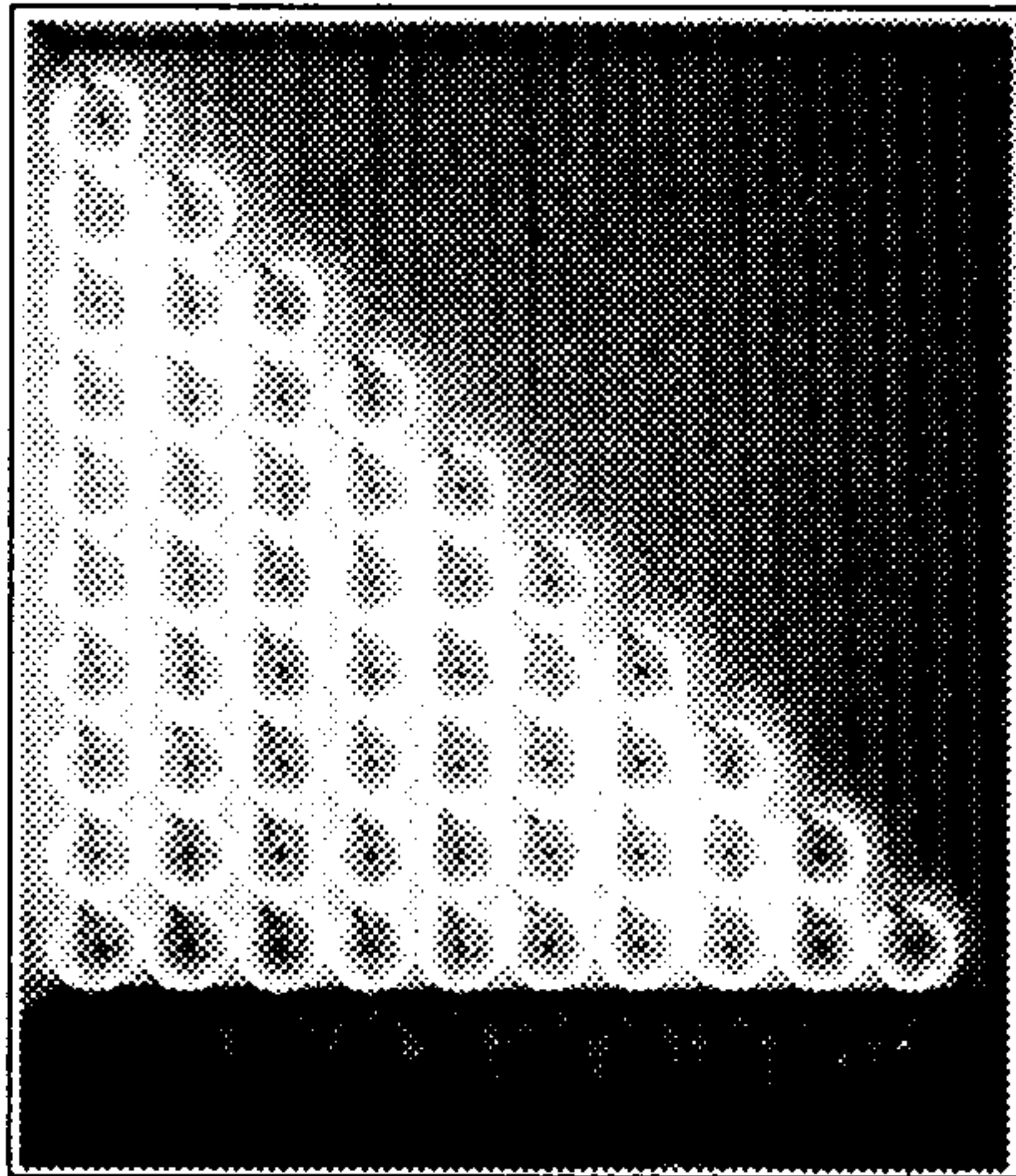
응을 위해서 회화적 접근보다는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형태와 선을 사용했다. 전체적으로 하드 에지 회화는 평평한 표면에 크고 단순화된 기하학적인 형태, 정확하고 날카로운 윤곽, 밀칠하지 않은 캔버스에 원색을 직접 사용하는 것 등이 특징이다.

③ 비관계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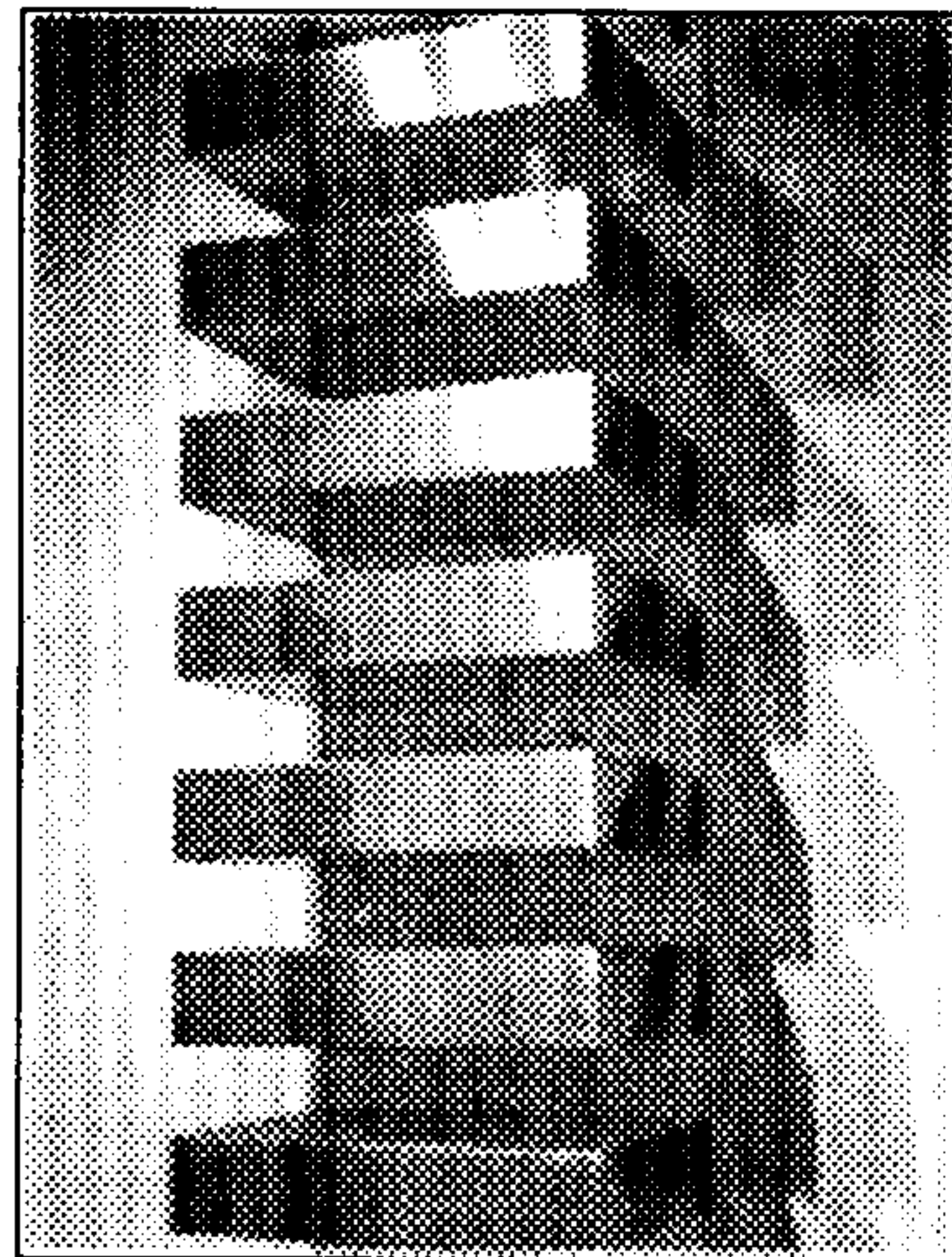
미니멀 아트는 비관계적 구성을 위한 반복적인 배열을 추구하는데 이는 미니멀 작품에 있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속(Serial)이라는 부분에 대해 전체 안에서의 개별적인 부분은 그 자체로서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정해진 규율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저드의 작품 <무제(Untitled)> [그림12]를 예로 들면 수직적 형태를 이루면서 같은 간격으로 쌓아올린 일련의 단위들을 통해 비관계적 질서를 강조

19) illusion: 추상표현주의에서 추구하는 환상적이고 주관적인 상징체계를 의미.

한다. 이러한 동일단위가 반복된 작품은 칼 안드레(Carl Andre)의 <구리-알루미늄 평원>이나 دن플래빈(Dan Flavin)의 <형광등의 배열> [그림11]등을 볼 수 있다. 플래빈은 빛의 사용으로 연속 병렬에 의한 배열방법, 규모 등으로 전시 공간을 다양하게 표현재료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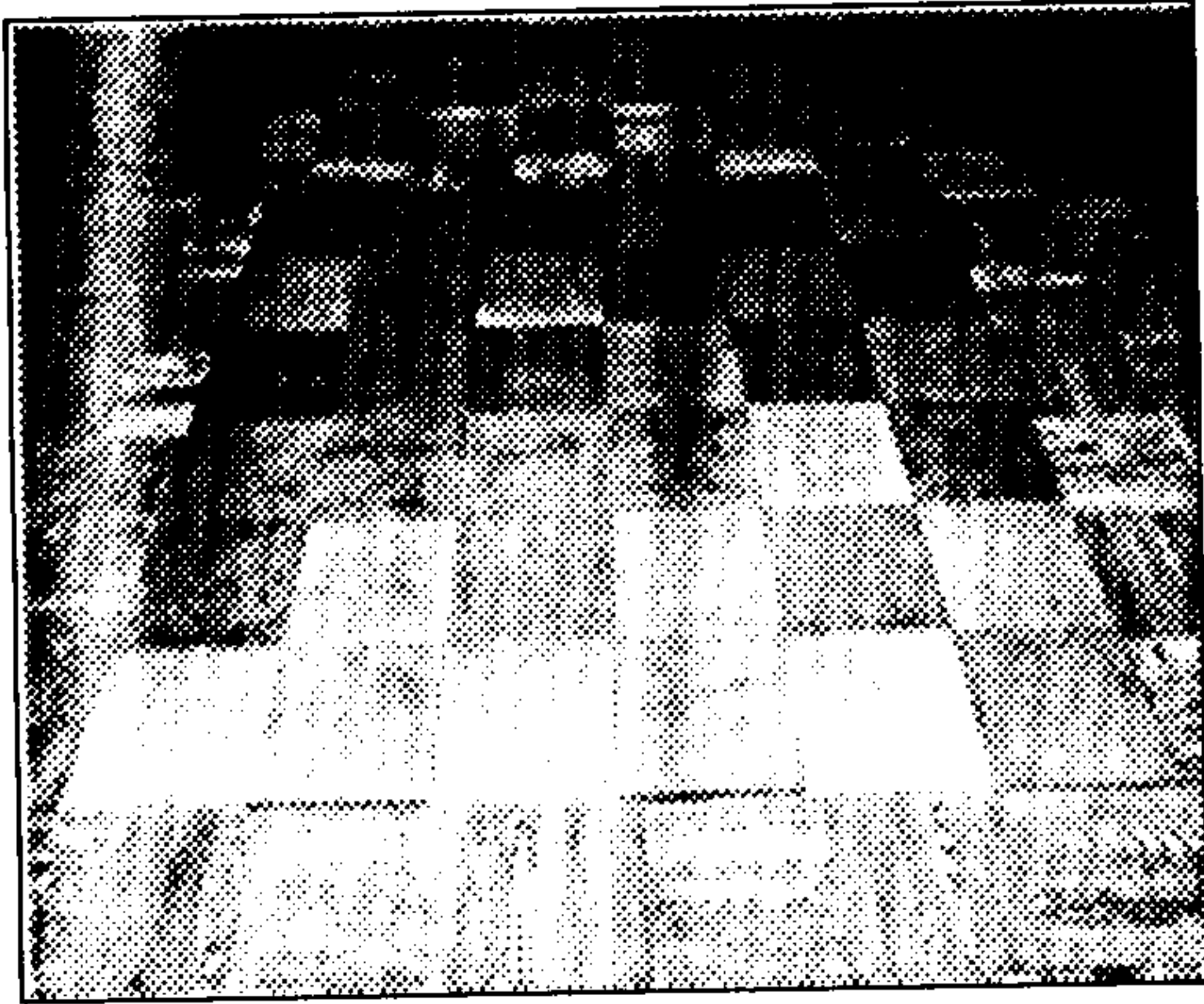
[그림11] دن 플래빈 형광등의 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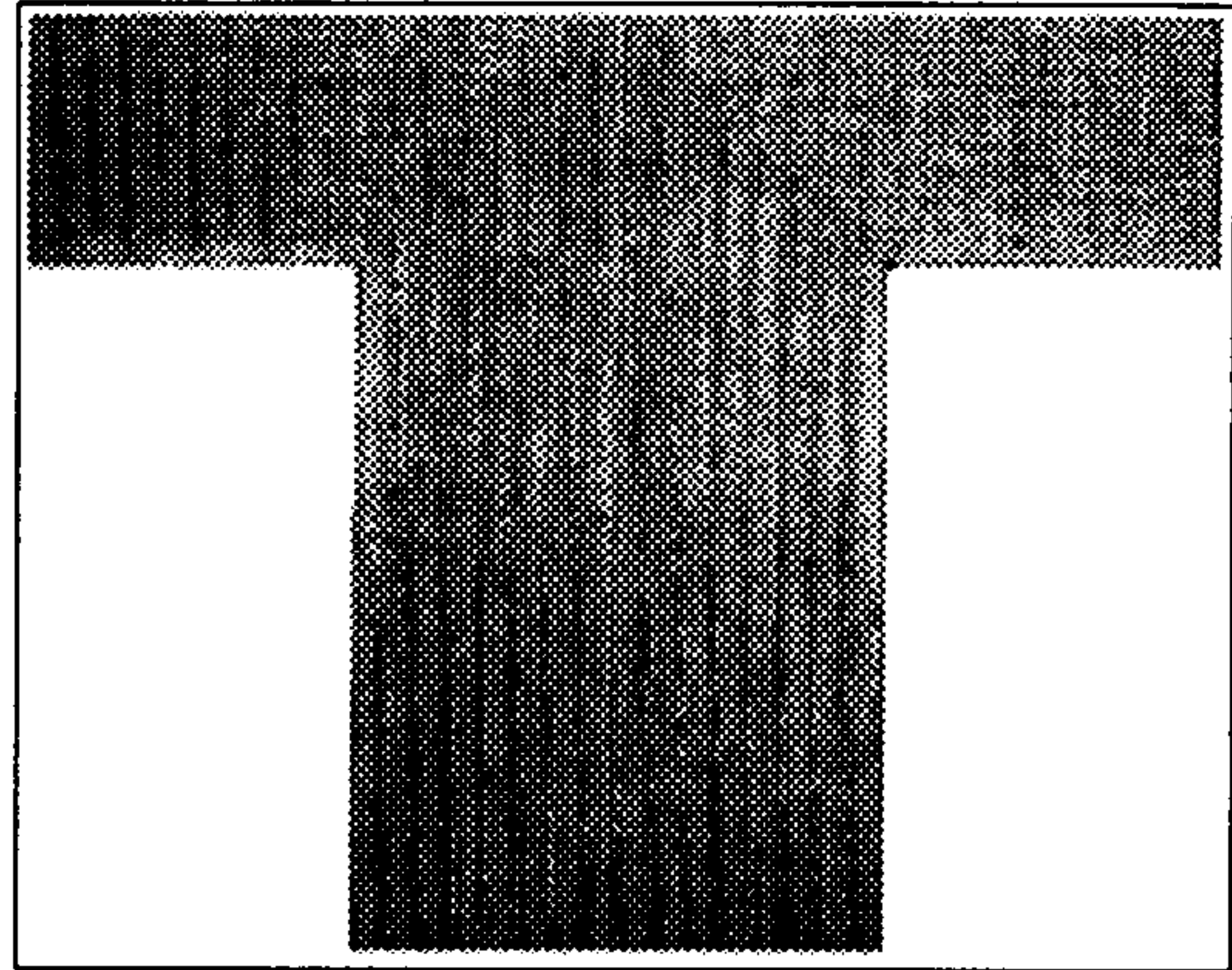
[그림12] 도널드 주드, 무제

④ 대칭적 구조

대칭의 시각적 효과는 미니멀 아트의 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 그것의 주요한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니멀 아트에 있어 대칭은 어떤 상징적 관념을 제시하는 기능으로써 보다는 순수 조형의 즉각적인 제시 기능으로써 채택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칭적 구조의 사용은 기본 형태의 사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의 [그림14]에서 기계적인 반복처럼 보이는 것으로 화판 표면을 가득 채우면서 똑같은 조각으로 동일한 열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전체 아이디어의 근본은 “균형”이라는 스텔라의 말이 그럴사하게 느껴진다.



[그림13] 칼 안드레, 구라-알루미늄 평원



[그림14] 프랭크 스텔라 텔루드 화합물

2. 담장(淡粧)에 표현 된 미니멀리즘

담장(淡粧)이란 우아하고 옅은 화장으로 조선시대의 용어이다. 우리 나라는 상고시대의 단군신화에서 부터 화장문화가 있었다는 흔적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육체와 정신이 동일하다는 영육일치사상(靈肉 一致思想)이 깊이 뿌리 박혀 얼굴을 단정히 가꾸고 몸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조선시대의 미는 유교 사상으로 인해 용모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신체와 정신을 단정히 가다듬고 외면과 내면의 미(美)를 일치시킨 사상이 조선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조선시대의 화장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내면의 미와 외면의 미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1) 내면의 美

시대는 같지 않아도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풍토적 양식과 사회적 성향은 그 민족의 문화에 어울리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흔히 자연은 문화를 아는 척도라고 한다.

이는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이에 대한 생활태도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자연환경은 이 속에서 생을 영위하는 생활주체로서의 인간의 기질 내지민족적 심성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그 민족에 고유한 미의식 내지 예술의식을 비롯한 여러 문화현상을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러므로 조선의 美에 대한 의식은 한반도의 자연조건과 풍토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풍토는 한 민족이 살아온 어떤 지역의 기후, 지층, 섭생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것은 지리적인 자연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느껴지는 어떤 심리 상태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다.²⁰⁾

산하(山河)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구릉지대여서 지평선이 보일 만큼 광활한 평야지대도 없고 깎아지른 기암절벽도 없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산들과 굽이쳐 흐르는 강들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느낌의 산에 둘러싸여 살아온 우리의 의식 속에는 대지의 형태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우리의 기억, 사고 속에 축적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조들은 그 대지의 형태와 비슷한 둥그스름한 곡선에 친화감을 느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여인상은, 얼굴은 둥근 형이고, 아위지 않았으며, 살빛은 흰편이고, 흉터나 잡티가 없어야 하며, 머리술이 많으며 검고, 인중은 긴편이고 입술색이 붉은 편인 여자들을 선호하였다.

영조시대에 예조판서를 지냈던 이정보의 어느 여인을 두고 읊은 사설시조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여자들의 멋과 함께 마음도 들여다 볼 수 있다.²¹⁾

"생매같은 저 각시님 남의 간장 그만 뽕소 돈을 주랴 은을 주랴 대단(人緞)치마²²⁾ 향

직당의(鄉織唐衣)²³⁾ 향라(尙羅) 속곳²⁴⁾ 백릉(白陵)²⁵⁾ 허릿띠, 구름같은 북도(北道)다

20) 백기수, 미와 예술과 인간, 계몽사, 1988, p.32.

21) 전완길, 멋5000년, 교문사, 1980, p.69

22) 대단(비단)치마

리²⁶⁾, 옥비녀 · 죽절비녀 · 은장도라. 금패자루 금장도라. 밀화자루 강남서 나오신 산호
가지 자개 천도청란(天桃靑鸞) 박은 순금 가락지 석옹황 진주당게 수초혜²⁷⁾를 주랴.
저 님아 1만량이 꿈자리라 꽃같은 보조개에 웃는 듯 찡기는 듯 천금일약을 잠깐 허
락하여라“

화려한 금은 보화를 마다하는 조선시대 여자들의 정갈하며, 단아한 기품있는 아름다움
을 나타내 준 글이다.

조선의 미는 내면적인 세계를 파고 드는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흰색
을 좋아하고 숭상하였다. 이와 같이 흰색을 좋아하는 이유를 내적인 미의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흰색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깨끗하고 사욕에 물들지 않은 결백하고
순결한 마음을 나타내고 동시에 화사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기질”²⁸⁾이 흰색을 좋아하
게 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흰빛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끝도 없이 솟아나는 오색이 영롱
한 ‘욕(慾)’의 빛깔들을 멀리하고 반사시킨다. 그리고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어야 흰빛을 드
러내게 된다. 흰빛은 곧 담백한 빛을 말한다. 이 담백한 빛은 담백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빛깔이요, 얼굴빛이다.²⁹⁾

황호근은 ‘한국의 미에 대한 의식’에는 “텃밭”이란 감성미, “맵시”란 형태미가 있을 뿐
만 아니라 “결”이란 표현미와 “멋”이란 정신미가 있다고 한다. 더욱이 이런 미에는 적막
미(寂寞美)가 있는가 하면 단순미도 있고 청초미도 내포되어 있다.³⁰⁾ 다음의 시구는 삼의
군(三宜君) 김씨의 시로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23) 향직당의(외출복)

24) 향라속곳(명주속옷)

25) 백릉허리띠(흰비단 허리띠)

26) 북도다리(가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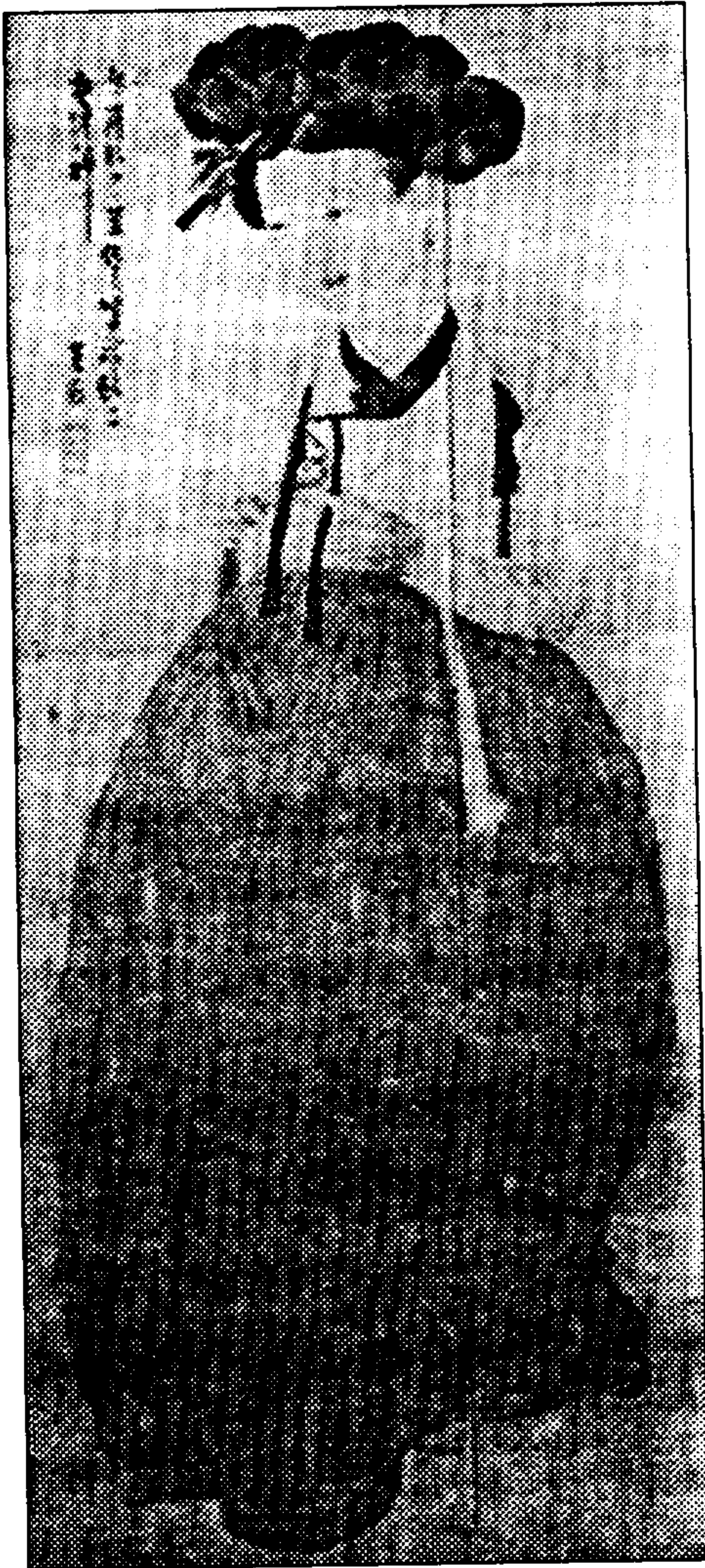
27) 수초혜(수놓은 신발)

28) 이상우, 동양미학론, 시공사, p.142.

29)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p.238.

30) 황호근, 한국의 미, 을지문고, 1969, pp.3-4.

“조용히 창밖을 건너려니
 봄별이 길기도 기네
 꽃 꺾어 머리에 꽂으니
 벌 나비 지나가다 서로 엿보네”³¹⁾



[그림15] 신운복,미인도



[그림16] 작자미상 미인도



[그림17] 작자미상 미인도

31) 황호근, 앞의 책, p.164.

이렇듯 미(美)는 아름다움을 말한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미의 일부이지 모든 것은 아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면서 내면적인 미를 중시한다. 아름다움은 내재된 미가 밖으로 표현되어지면서 외모에 영향을 미친다. 얼굴에는 사람의 마음, 곧 내면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

조선시대 미의 본질은 담백한 깊이가 있어 조용하고 맑고 정숙함과 자연스러움을 나타냈다.

2) 외면의 美



[그림18] 신윤복, 단오풍정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사치와 퇴폐풍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근검·절약하고 사치스런 옷차림과 장신구, 화장에 대하여 여러차례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로 인하여 조선시대 여인의 치장이 담백해 졌다.

조선시대에는 아름다움의 기초인 청결을 매우 중시하

였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는 일을 첫 일과로 삼았고, 외출했다가 돌아온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는 등 청결하면서도 단정한 몸가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으로 옷을 벗고 전신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특히 백중날, 칠석날, 유두날³²⁾의 목욕을 '물맞이'라 하여 폭포수 밑이나 바다로 흘러 떨어지는 물밑에

32) ① 백중날의 목욕은 7월 14일인 백중살이를 고비로 여름 물과 겨울 물이 바뀌어지게 되

서 물줄기를 맞으며 목욕하는 풍습을 세시화 시켰다. 상류층에서는 치료수단이나 미용수단으로서의 온천욕, 냉천욕, 향탕, 약탕 등이 크게 풍속을 이루었다.

“내양자 남만 못한줄 나도 잠간 알건마는
연지도 바려 있고 분대도 아니 미네
이러고 괴실가 뜯은 전혀 아니 먹노라.”³³⁾

정철의 시조를 보면 그 당시 화장이 분·연지·눈썹먹 등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화장법은, 옅은 색조의 은은한 화장을 즐겨 하였다. 화장한 모습이 전보다 확연하게 달라 보이며 야용(冶容)이라 하여 경멸하였다. 『여사서(女四書)』³⁴⁾를 참고하면 여자의 법도에 대해 말하기를 “출무치용(出無治容)하고 입무폐식(入無廢飾)”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은 외출시에는 야한화장을 하지 말 것이며 집에서는 자신을 가꾸는데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이르는 말로서 여자들의 짙은 화장을 경시하고 금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조선시대의 일반 부녀는 기녀의 화려한 분대 화장을 기피하여 자연스러운 피부색을 표현하려 하였는데, 조선시대의 풍속에 대한 기록 가운데에 “분바른 낮은 불그레하고 희어서 발에 얼비치었다.”³⁵⁾는 내용으로 보아 반드시 백분만을 사용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부

기 때문에 모든 물이 약이 된다는 속신에서 비롯됐다.

② 칠월 칠석날의 목욕은 이때에 이르러 약수(藥水)가 여물어 부스럼을 방지하고 속병을 고친다는 속신에서 비롯되었다.

③ 6월 보름의 유두욕(流頭浴)을 동쪽으로 흐르는 물로 한정된 것은 ‘東方이 吉이요 陽氣가 왕성한 곳’이기 때문이다.

33) 정병욱, 시조 문학사전, 신오 문화사, 1966, P.109.

34) 김종권, 女四書, 명문당, 1987, p.46.

35) 조효순, 한국풍속사연구, 일지사, 1988, p.387.

색과 비슷한 복숭아색을 즐겨 발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백분의 경우, 분꽃을 집주변에 심어 거둔 씨앗을 그늘에서 말려 맷돌로 빻고 체에 쳐서 만들었다.

이러한 재료로 만들어진 백분은 부착력과 퍼짐성이 약하여 분을 바르기 전에 족집게나 실면도로 얼굴의 솜털을 제거한 후에 백분을 물에 개어 발라야만 했다. 굵은 털은 족집게로 뽑지만 잔 털은 명주실을 꼬아가면서 아래서 위로 옮겨가면서 뽑아 주었다. 화장시에 적당량을 분 접시에 덜어 물로 개어 누에 고치집에 묻혀 펴 발랐다.

부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 납과 초를 섞은 연분³⁶⁾이 만들어졌다. 이때 초의 분량, 숯불의 온도 등에 의해 분의 빛깔이 달라졌는데, 푸른 빛을 내는 분을 진분이라 하여 최상급으로 쳤다. 연분을 장기간 반복 사용하면 땀구멍이 커지고 얼굴색이 변하는 납중독을 일으키는데, 얼굴에 납독이 올라 안색이 푸르죽죽 변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빈혈과 구토증세까지 일으켰다.

조선시대의 눈썹화장은 다른 부위의 화장보다 수정이 쉬워 눈썹술이 너무 많으면 뽑아서 연하게 해주고 술이 너무 적으면 진하게 그려 주었고 눈썹길도 수정하였다. 눈썹의 곡선은 당시 버들 눈썹이 유행이었으므로 눈을 중심으로 약간 휘게 그려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의 남자들이 예찬한 미인의 눈썹에 관한 표현에 “가늘고 수나비 얹은 눈썹”이라는 표현이 있고 조선시대의 ‘미인도’를 보면 한결같이 가는 곡선형의 눈썹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눈썹 화장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대부의 생활지침서 『규합총서』³⁷⁾에는 십미요(十眉謠)라 하여 10가지 눈썹형태를 다

36) 和漢三才圖會, 卷二十五, 容飾具. “납분(연분)은 아연에 화학변화를 일으키게 해서 만드는 것으로, 아연을 녹여서 얇은 판자처럼 만든 후, 그것을 돌돌말아 나무시루에 집어넣고 시루밑에 초를 넣어서 화학 작용을 일으키게 한다. 이때 시루의 외부는 진흙을 발라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되, 아연의 화학 반응과 물의 증발 관계를 엿볼 수 있도록 4군데에 각기 작은 구멍을 뚫어 놓는다. 이렇게 한 후 풍로에다 불을 잘 지피면, 잠시후 시루 밖으로 하얀 가루가 나오는데, 이 하얀가루를 나오는 대로 자주 받아내 물에다 걸러서 토기로 만든 그릇에 종이를 층층이 깔아서 그 위에 놓고 수분을 말리면 이것이 분가루다.

37) 빙호각 이씨(憑虛閣李氏) (정량완역), 규합총서, p.236.

양하게 표현해 놓았다. 심미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원 앙(鴈鵞) : 원앙(鴈鵞)이 날으니 물결이 일어나는 구나. 연기 이 날에 오히려 고우니
근심이 아리따운 눈썹에 무르녹느니 두 원앙이어라.
- ② 소 산(小山) : 소산(美山)이 비록 적으나 구름 머리에 일어났구나. 쌍아(雙娥)이 같으니
능히 한가한 근심을 실었구나. 산위에 비오니 눈썹이 또 웅하더라.
- ③ 오 악(五嶽) : 못 봉우리 삼저(參着)하니 오악이 근거하네, 가을 문채 물결이 놓은 산만
같지 못하여라, 저 눈썹 길미여 자주 찡기지 마라.
- ④ 삼 봉(三峰) : 바다 위 삼산을 바라보니 아득히 채색이 나는구나. 옮겨 거울을 마주 보
니 눈에 비치는 구나. 은해(銀海)를 마르면 삼봉이 사라지리.
- ⑤ 수 주(叢珠) : 다섯말 진주로 아미(蛾眉)를 샀네. 빌어 묻노니, 아미를 무엇에비길꼬, 궁
전에 십이승을 비취리라.
- ⑥ 월 룡(月稜) : 눈썹은 안보이고 달만 보이네. 월궁(月宮)의 도끼 흔적이 다아 이지러졌
으니 미인의 눈썹위에 별렸구나.
- ⑦ 분 초(分稍) : 뿔(山)를 그려 변봉(變鳳)같으니 푸른 것이 떨어져 맑기가 내(川)같도다.
그린 눈썹이 모름지기 이와 같으니 홍지(紅脂)에 춘산(春山)오네.
- ⑧ 함 연(涵烟) : 눈썹이 나에게 이르기를 맑게 지으면 가을비 소슬한 넷물 같고 화려코자
하면 봄바람에 맑은 세 뿔뿌리 로구나.
- ⑨ 불 운(拂雲) : 꿈에 고당(高堂)에 노니 구름기운이 바로 눈썹에 당하였네. 새벽바람이
불되 끊어지지 아니하네.
- ⑩ 도 훈(倒暈) : 장대(粧臺)에 세월이 놓았고 옥니에 청점이 길었네. 가느다란 손으로 거
울을 마주하니 아름다운 봄바람이 몇번이나 그렸는지

조선시대 눈썹 먹의 재료로는 관솔 먹, 달개비 꽃잎 태운 재, 버드나무, 굴참나무, 밤나무
의 목탄, 목화꽃 태운 재, 참깨 그을음이 있고 원료에 따라서 검정색, 검푸른색, 짙은 밤
색, 회색, 자색의 다양한 색이 만들어 졌다. 대체로 식물을 태워 만든 재료는 기름에 개어

야만 점착력을 발휘했던 것 같다. 굴참나무와 밤나무의 목탄을 칠할 때에 가루가 떨어지는 결점이 있으므로 관솔에서 나오는 유연(油煙-기름연기)을 받아 평지씨 기름에 개어 사용하였고 목화의 자색 꽃을 태운 재를 유연에 묻혀 참기름에 개기도 하였다. 일반 서민들은 아궁이의 숯검정이나 보리감부리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쉽게 지워지는 결점이 있었다. 미묵중 가장 고급스러운 것은 송연묵(松煙墨)으로 반죽 먹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달개비의 꽃잎 태운 재를 호마유(胡麻油)로 개고 여기에 유연(油煙)과 홍금(紅金)가루를 적당량 개어 사용하였다.³⁸⁾

입술 연지 바르는 방법으로 위·아래 입술 전체에 바르지 않고 입술 끝에만 빨강게 찍어, 앵두같은 입술 표현을 하였다.

《춘향전(春香傳)》에도 단진호치(丹辰皓齒)³⁹⁾, 주순(朱潁)⁴⁰⁾ 등의 표현이 있는데 붉은 입술을 통해 연지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용모나 나이에 관계없이 얼굴이 ‘백옥(白玉)같다’거나 ‘관옥같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백옥 같은 피부는 단순히 흰 피부가 아니라 투명한 피부, 즉 희고 윤택한 피부를 의미한다. 피부를 희게 가꾸기 위해 분세수를 하기도 했다. 분세수란 물에 갠 분을 얼굴에 발랐다가 물로 씻어내는 것을 말한다. 옥같은 피부를 위해 꿀찌꺼기를 얼굴에 골고루 펴 발랐다가 몇분 후에 떼어 내는 미용법과, 꿀찌꺼기에 향을 가미한 것으로 얼굴을 윤기나게 하는데 사용한 영양크림과 흡사한 윤안향밀이 있었다.

『규합총서』에는 「면지법(面脂法)」이라 하여 “겨울에 얼굴이 거칠고 터지는데 달걀 세 개를 술에 담가 김새지 않게 두껍게 붓하여 네 이레 동안 두었다가 얼굴에 바르면 트지 않을 뿐더러 윤지고 옥같아 진다”고 하며, “얼굴과 손이 터 피가 나거든 돼지발 기름에 피

38) 전완길, 앞의 책, p.88.

조효순, 앞의 책, p.48.

윤연중, 화장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6, p.262.

39) 丹辰皓齒: 붉은 입술과 흰이, 미인을 말한다

40) 朱潁: 붉은 입술

화(傀花)를 섞어 붙이면 낫는다.”고 한다.

『증정현토산림경제(增正懸吐山林經濟)』⁴¹⁾에는 「주름살 없애는 법」이 소개 되어있는데, “멧돼지 발톱 4개를 장에다 자주 끓여서 얼굴에 바르고 잔 후 다음날 아침에 씻으면 얼굴 가죽이 조이며, 겨울이 되면 주름살이 잡혀 툭툭 터지는데 그 부위에 멧돼지 기름을 발라 주고, 만약 입술이 바삭 말라 트면 복숭아씨를 갈아서 멧돼지 기름에 개어 바르면 낫는다.”고 한다.

16세기경 선조때에 일본에서 발간된 “朝の露(아침이슬)”란 화장수의 광고 문안 가운데 ‘조선의 최신 제조방법으로 제조한...’⁴²⁾이란 표현으로 미루어, 양질의 화장품을 제조하였으며, 조선시대의 화장품 제조는 분과, 피부관리를 위한 기초 화장품에 주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화장품의 판매 정도를 살펴보면, 숙종(1674~1720) 때 이미 매분구(賣粉媧)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방문 판매가 행해졌는데, 매분구란 화장품과 화장구를 집집마다 방문 판매하는 여자로 『동계집(東溪集)』에 보면 숙종 임금 때 경성 사람 모씨(某氏)의 종이 결혼하지 않고 분과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여성의 외출이 제약받던 시대적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형태의 화장품 판매는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방문 판매는 매분구 외에도 방물 장수, 붓집 장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화장품과 화장도구를 판매하던 분전(粉店)이라는 전문상점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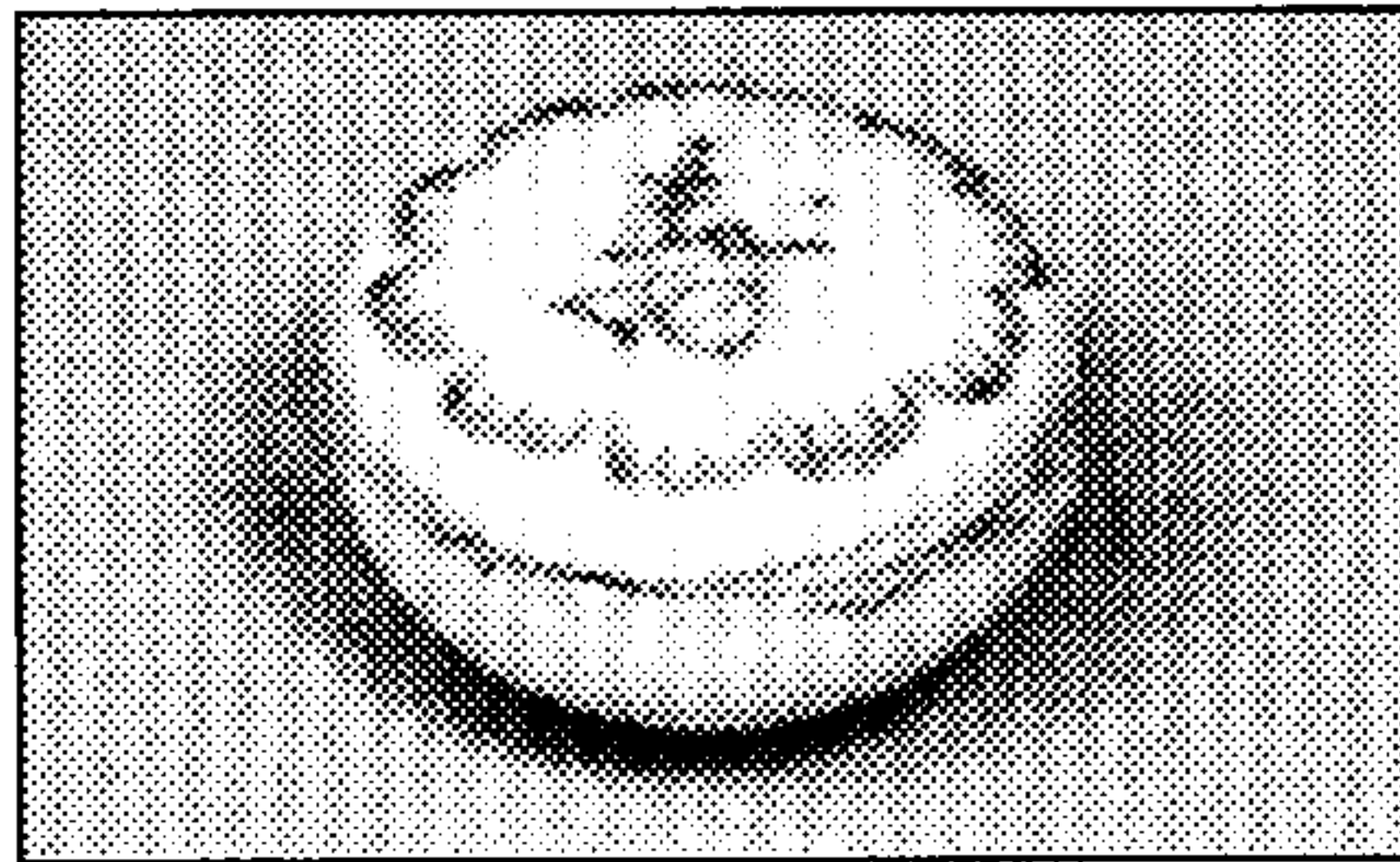
『여용국전(女容國傳)』⁴³⁾에 보면 여러 화장품과 화장도구가 등장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화장품 종류와 화장 규모를 짐작케 한다. 그런데 이 소설은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여인이 게으름을 피워 추하게 되었는데, 화장을 함으로써 예전처럼 아름다워 지고, 태평 세월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 소설의 특징은, 화장이 나라 다스리는 일만큼 중요하니 못 여성들에게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단정한 몸가짐의 필연성을 역설하고 있다.

41) 유경존, 증정현토산림경제, 하편, 격물사, p.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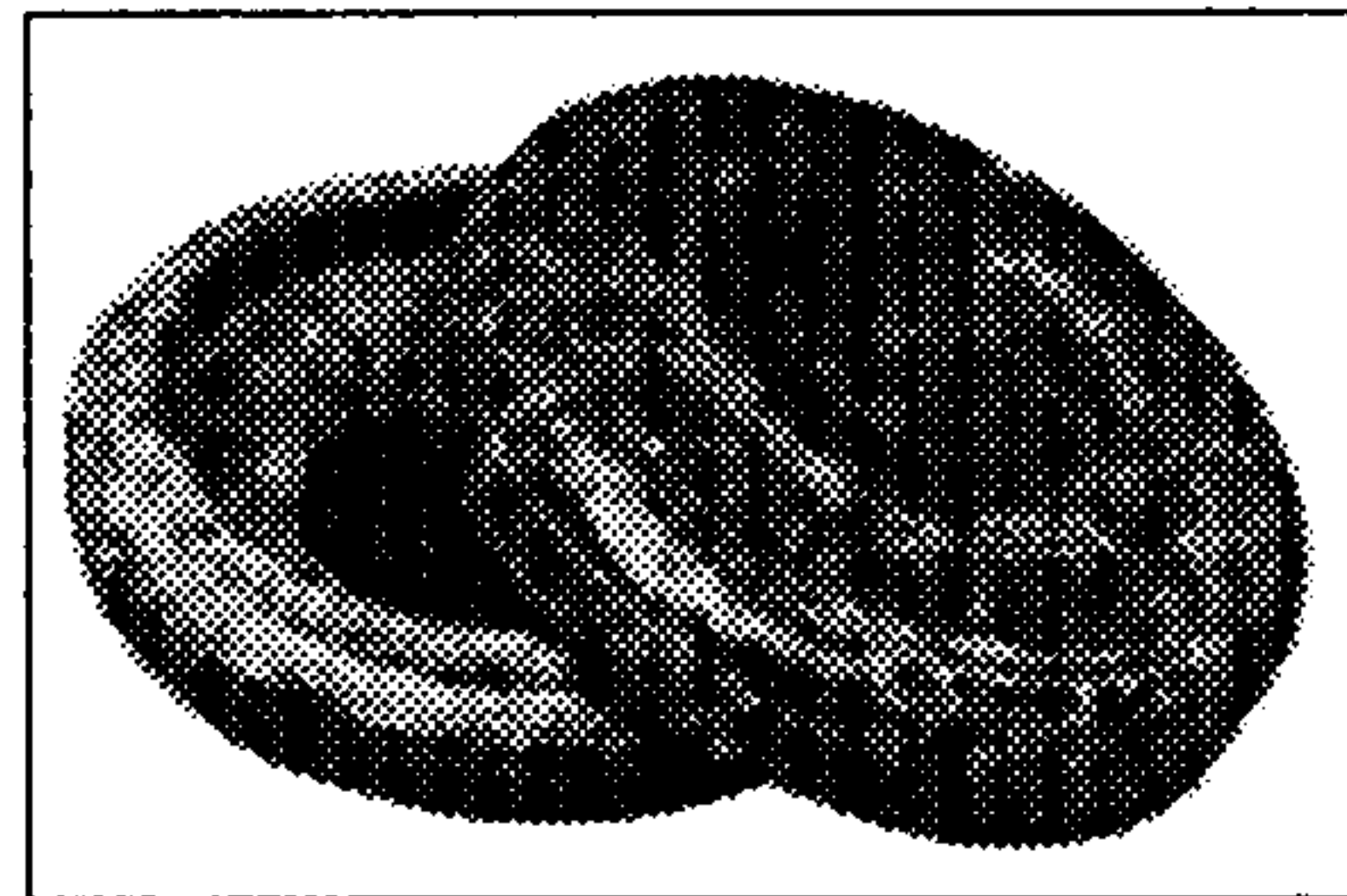
42)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동아원색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85, p.404.

43) 『여용국전』은 안정복(安鼎福:1712-1791)이 『여용국평란기』를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연지·머릿 기름·백분·화장수·향유 등의 화장품과 거울·쪽집개·모시 실(모시실은 얼굴의 잔털을 없애는데 사용하였다) 수건·대야 등 화장품 및 화장도구가 19가지 었다.



[그림19] 청화백자 분합



[그림20] 돌 분합

조선시대에는 요즘의 미용사처럼 전문 직업으로 수모(手母)가 있었다.

신부의 화장을 가리켜 ‘응장성식(凝粧盛飾)’이라고 하는데, 이 화장은 혼례 때에만 하므로 일반인이 하기 어렵고, 화장 외에 의상과 장신구의 치장이 매우 까다로와 수모(手母)가 신부의 응장성식을 도왔다. 수모(手母)는 여염집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궁중행사에도 참여하였다. 즉 세자빈이나 중전 간택시 간택에 나선 규수를 수모가 시중들었으며, 세자빈의 가례 때에도 수모가 시중 들었다는 기록이 있다.⁴⁴⁾

조선의 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성의 추구에 부합되는 ‘자연의 미’라고 할 것이다. 완전무결한 아름다움이 아닌 성찰(省察)되지 않은 무관심한 상태에서 오는 풍취로 담백한 멋, 자연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곡선의 미’에서 볼 수 있다. 담백함과 검허를 통해 형성된 우리민족의 정서는 모나고 두드러진 것 보다는 둥글고 감추어진 미를 추구하였다. 오색찬란한 인공색채를 멀리하고 담백한 무채색을 좋아하였으며 배색에서도 원색이 아닌 중간색 위주의 배색을 하였다. 또한 백색을 선호하여 일반서민의 의복이 백색이었다. 인위적

44) 전완길, 앞의책, p.81.

인 요소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역학적 단순미를 보여주는 조선시대의 화장은 은은하며, 부드럽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 조선시대는 백의의 단아미, 흑백의 조화미, 여백의 미 등의 미적 특징을 구현하였으며 전체와 부분의 대비, 정지와 움직임의 변화미를 기조로 하는 멋이 있다.

완만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선의 미와 간소한 형의 미 그리고 백색의 단아함을 선호하는 색의 미에서 조선시대의 화장문화와 미니멀리즘의 단순성, 간결성, 순수성 등의 특성과 연관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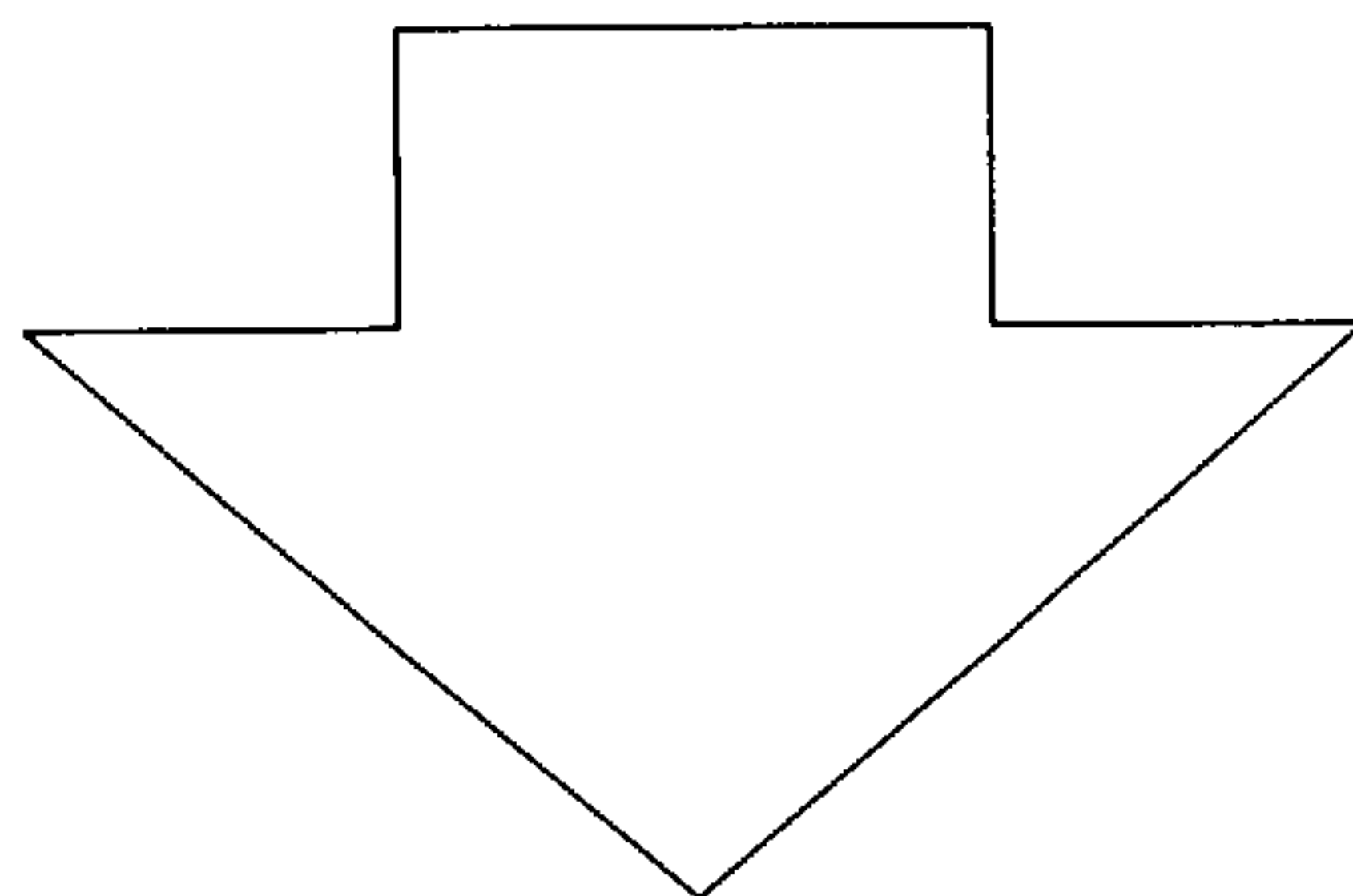


[그림21] 웅장성식

조선시대의 화장문화와 미니멀리즘의 유사성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담장의 조형성과 미니멀 조형성과의 유사성

담장의 조형성	미니멀 조형성
• 자연의미 • 멋, 간소성, • 곡선의 미 • 간소한 조형 • 흰색의미 • 흑백의 조화미	• 단순성 • 간결성 • 순수성 • 기하학적성 • 반복성 • 물질성



공 통 적 특 징
순 수 성 지 향



[그림22] 제용신 윤랑자상



[그림23] 작자미상, 미인도



[그림24] 하연부인상



[그림25] 김홍도 미인화장

III. 한국화장에 표현된 미니멀리즘

1. 형(形)에 의한 표현(대한제국-1950년대)

1) 개화기



[그림26] 명성황후 민비

파란 많았던 구한말, 당대의 역사를 주름잡았던 여걸(女傑) 민비(閔妃)는 늘씬한 몸매에 빼어난 미모로써 머리가 총명하고 야심이 대단했던 여인이기에 마침내는 비운으로 그의 일생을 끝내야 했던 가련한 인생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명성황후(明星皇候) 민비는 진주분(眞珠粉)을 굉장히 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가 사용하던 화장품은 러시아 공사 웨비르의 부인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웨비르 부인은 민비의 화장품을 댔을 뿐 아니라

화장을 직접해 주기도 했다. 여걸 민비도 아름다움에의 미련을 갖는 여인임이 분명했으며 화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웨베르 부인을 가까이 두고 있었다.

민비가 애용했던 진주분의 연독으로 얼굴이 항상 파리했었다는 사실이 황후를 몇 차례나 만나 보고 쓴 『조선과 그 이웃나라』라는 기록에 의해 엿볼 수 있다.

당시 영국인 버나드 비숍 여사가 몇 차례 우리나라를 여행하던 중 민비를 만나보고 쓴 그에 대한 기록에서 “황후는 사십이 넘어보이고 늘씬한 몸매에 미인이라는 첫 인상을 받았다. 머리는 흑색이고 화장은 진주분(眞珠粉)을 썼기 때문에 창백해 보였다. 눈은 몹시 날카롭고 냉정했으며 모습 전체가 기민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보여 주었다. 조선 여인으로 는 드물게 보이는 특징을 지녔다.”⁴⁵⁾라고 기록 되어있다.

개화의 바람속에 1907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열렸던 '경성박람회'에는 향장품이 진열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당시에 진열된 향장품은 국내에서 수공업으로 제조되었던 연지나 동백기름, 분백분이 고작이었고 그밖에 양풍을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제 향장품이 눈에 띄었다.

지금까지 향장품은 기생이나 화류계 여성들만이 쓰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개화의 바람을 타고 여학생은 물론이고 여염집 가정의 주부들까지도 박화장(薄化粧)이 널리 유행하기에 이르러 향장품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고, 값도 폭등하는 현상을 빚었다. 종래의 향장품은 원시적 수공업으로 만들어졌던 까닭에 품질도 나빴고 쓰기에도 불편했으나 1900년 초에 이르는 개화기에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밀수입된 외제 향장품은 품질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해 여인들로 부터 크게 인기를 끌었고 그런 까닭에 부르는 것이 값일 만큼 가격도 상당히 비쌌다.⁴⁵⁾

개화기의 여인들이 양풍(洋風)에 물이 들어 상당히 세련되고 짙은 화장을 했다는 사실이 영국인 비숍 여사가 쓴 『조선과 그 이웃나라』라는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과거(科擧)에 급제하고 금의환향(錦衣還鄕)하는 젊은 선비를 맞이하는 고을 사람들이 갖가지 화려한 옷을 입고 울긋 불긋한 깃발을 흔들며 피리 불고 북을 치면서 환영했다. 아가씨들은 머리를 윤기나게 곱게 빗고 얼굴에는 짙은 화장으로 매력을 물씬 풍겼다”⁴⁷⁾고 기록함으로써 당시의 여인들이 양반층은 물론이고 하류층의 서민들까지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화장을 즐겼음을 알 수가 있다.

개화바람을 타고 비로소 관제(官制)에도 위생국(그후 식산국으로 이관되었음) 이라는 것이 생겨나 향장품을 관장하는 정부기구가 탄생하게 되었고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각국으로 부터 외제 향장품이 들어옴에 따라 결국 국산 향장품도 정식으로 정부의 등록을 받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5)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답게, 1998, p.48.

46) 김덕록, 앞의 책, p.50.

47) 전완길, 앞의 책, p.90.

2) 전반기



[그림27] 영친왕 내외

한일합방에 따라 실로 다양한 문물이 유입됨과 아울러 생활관습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여성의 매무새를 보면 쪽머리와 땡기머리 대신에 퍼머가 유행하고 치마는 짧아지고 소매 길어도 짧아졌다. 또 뽀족 구두(하이힐)에 양산을 받쳐든 모습도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⁴⁸⁾

우리나라 화장품의 효시는 1916년에 생긴 박가분(朴家粉)으로, 국가에 정식 등록된 박가분의 등 화장품의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22년 12월 24일자 동아일보

광고란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려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향장품계의 패왕, 경성 생산품 품평회 신사장 공학박사 삼산회삼랑 (삼산회삼랑)의 심사를 득한 박가분을 바르시면 주근깨와 여드름이 없어지고 잡티가 없어져서 매우 고와집니다... 박가분은 경향각지 내외국의 신용 있는 포목점과 잡화상에서 판매하옵니다.>⁴⁹⁾

화장품광고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박가분의 성능을 과대광고한 화장품의 효시다운 면모를 보여 주었다. 박가분의 주성분은 물론 연분이었는데, 과거 재래식 분백분은 가정집에서 임의로 만들어낸 것인데, 납작한 골패짝에 분을 넣어 백지로 포장해서 팔아왔다. 박가분은 여기에서 발전하여 성냥갑만한 크기에 마닐라지로 포장했고, 애초에는 향도 없었으나 그 후 사향을 넣어 제법 향장품답게 제품을 만듦으로써 인기를 더해 갔다. 물론 품질은 조잡하였고 납(鉛)을 넣었기 때문에 그후 연독(鉛毒)이 크게 사회 문제화 되어 결국 폐문하는 사태까지 빚게 되었다.

우리의 향장품 제조기술이 유치하여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사회문제화 되자 일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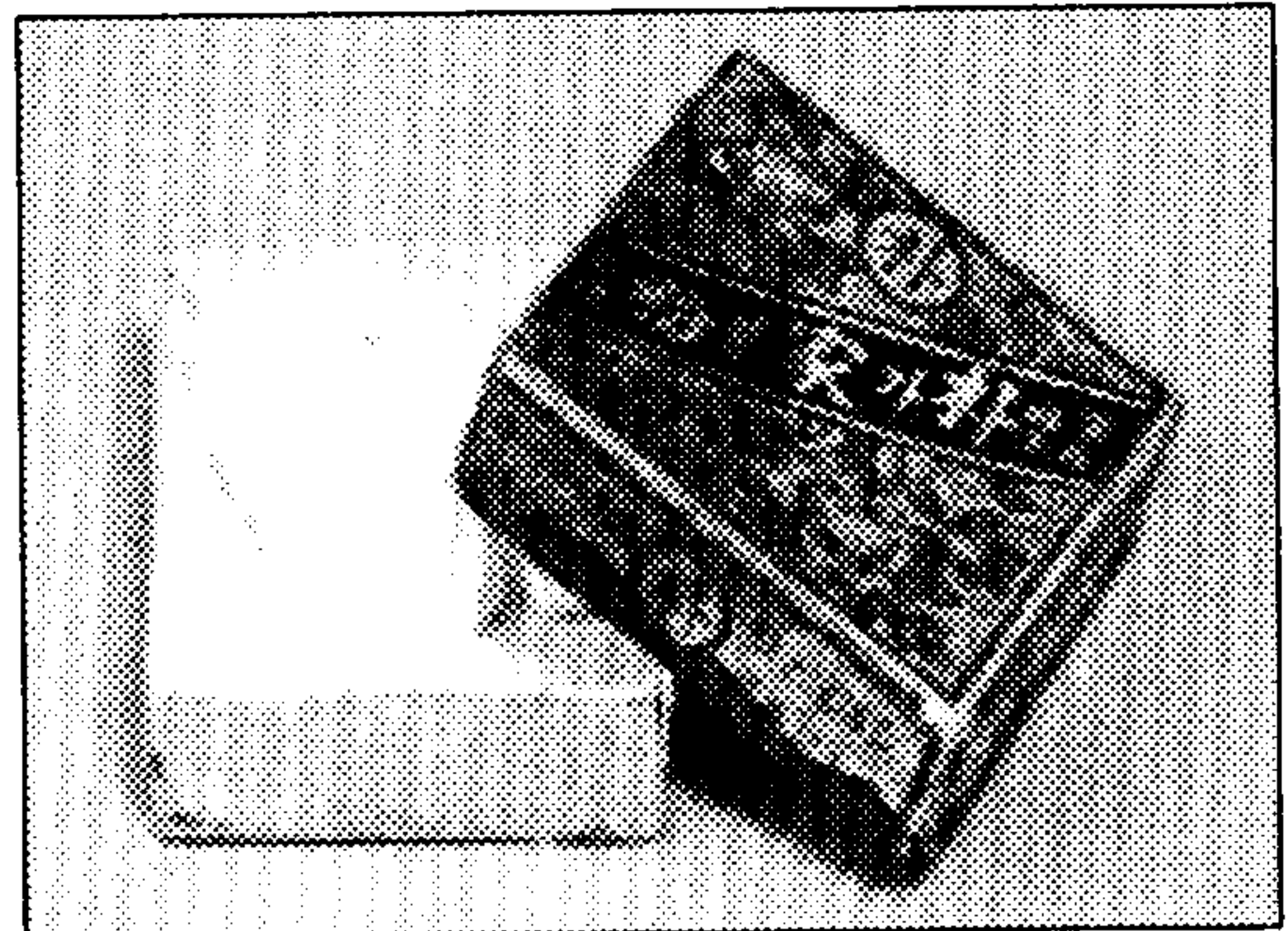
48) 민봉기외, 한국생활 문화100년, 장원, 1995, p.135.

49) 동아일보, 1922, 12월24자 광고참조

들은 재빨리 자기들의 제품이 부작용이 없는 우수제품이라는 내용의 광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바로 '구다부' 백분이라는 제품이다. 구다부는 광고문에서 '살 거칠어지지 않고 해에 그을리지 않으며 위생적 문화생활의 필수품'이라는 내용의 선전문구를 통해 소비자의 구미를 끌기에 요란을 떨었다.⁵⁰⁾



[그림 28] 분 광고



[그림29] 박가분

1920-1930년대의 신문 기사를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패션과 화장에 활애하고 있는데, 그 기사들은 한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바로 옅은 화장, 점잖은 화장, 즉 흰 피부에 분을 약간 바른 화장법을 제안하고 있다. “학교를 갓 졸업한 여성은 경험이 없으니까 옅은 화장, 코가 낮은 여인은 진한 화장이 안 어울려서 옅은 화장, 사진을 찍을 때 자연스러우려면 옅은 화장, 중년 여인에게도 옅은 화장...”⁵¹⁾ 그야말로 옅은 화장이 아니면 큰 일이라도 날듯 사람들은 점잖은 화장만을 강조했다. 신문광고에 나왔던 국산 화장품 종류는 다음과 같다.

<동아부인상회>에서 큰 병 하나에 60전 작은 병은 40전에 팔던 <배달기름>이 있다.

[우리 머리를 위하여서 날과 달도 개량되니 사랑함이 한이 업네]한 배달기름은 배달사

50) 김덕록, 앞의 책, pp.50-52.

51) 가야미디어, 바자, 1999 12, p.204, 재인용

제품

남녀 공용인 배달기름은 광고에 한반도를 그려 넣어 국산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복두칠 성같이 분명히 나타나는 배달기름의 일곱가지 효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부서지는 머리는 유해지고, 한번 발러 사흘 가고, 누른 머리 차차 검고, 고슈 머리 펼경 퍼지고, 눈이 부실 듯 윤이 나고, 질은 머리 곳 풀니고, 값도 헐합니다.]

화장품을 포함 부닝용 잡화(雜貨)를 판매하던 동아부인상회에서는 <평화연부액>도 판매 했는데, 이것은 [살은 연하고 곱게... 분 잘 받고 잘피게... 달코 거칠고 트지 않는 모범식 부료(膚料)요, 모범식 수(水)크림]으로서 [미안수로 손등약으로... 무엇보다도 실효하고, 무엇보다도 경제됩니다.]는 구실로 권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겨울 연부액이 나왔습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하고

[세수한 후 반드시 얼굴에 바르시오 일하고 쉬실 때는 손등에 반드시 바르시오 분 바르기 전에 반드시 바르고 분 바르시오 달코 터진데도 반드시 바르시오 얼굴 기타 피부잡병에 바르시오]하면서 [써보십시오 얼마나 살을 곱게 하고 얼마나 화장이 묘하여지는가]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태평로에 소재한 <울도상점(栗島商店)>에서는 귀부인용 <연향유>와 귀부인용 고등 훈향 <밀기름>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또 인사동 소재 <조선 부인약방(朝鮮婦人藥房)>에서는 여드름 치료에 약용 <금강액(金剛液)>을 제조하여 50전에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광고 내용을 보면 [참신한 전문 학리(學理)와 심중한 임상실험의 일치점에서 확증한 특종약 10종으로 완성한 여드름·죽은깨·마른 버짐·어루턱이 특효약]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요즈음 수입품 코너격인 <상해동신공사(上海東新公司)>에서 취급하던 화장품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생발향유·미인향수·미용분·난화분·화로수·윤안향밀(생발향유·미인향수·미용분·난화분·화로수·윤안향밀)

또 광고가 빈번한 외제 화장품은 〈황후궁직어용품(皇后宮職御用品)〉이라는 〈구라부 미신(美身)구리므〉가 있고, 보통 향수에 비하여 농도가 30배 짙다는 〈원료(原料) 향수 오리지나루〉가 있었다.⁵²⁾

신문에 광고한 화장품 외에도 가내수공업 규모로 생산된 상표없는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좌상(坐商)은 시장에서, 손수레 행상들은 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고객이 원하는 양만큼 덜어서 판매하였다. 크림을 손수레에 싣고 다니면서 북을 등등 쳤기에 ‘동동구리므(구리므는 일본식발음의 크림)’라는 말이 생겨났다.

최초의 전문 미용실은 경성 미용원으로, 1920년 8월 13일자 신문을 통해 양증맞은 광고를 하기도 했다. “얼굴 곱게 하는곳, 통지만 하시면 설명서를 거저 보냄. 경성 운미동 팔십 칠번지.” 하지만 경성 미용원은 일본인에 의해 경영되었던 듯하고, 첫 한국인 미용실은 33년 종로에 생겼던 오엽주의 화신 미용부였다. 배우로도 활동했던 오엽주는 당시로선 드물게 쌍꺼풀 수술을 감행했던 신여성이었다.⁵³⁾

일제는 국내 업자들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조선화장품제조업조합’을 결성케 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에 맞서 국내 중소기업자들은 따로 ‘조선정장품 제조업조합’을 조직해 일제의 탄압에 항거했으며 광복 후 조선화장품협회로 통합된 후 오늘날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의 모체가 된다.

3)광복이후-6.25동란

1945년 8·15 광복과 함께 서양문명이 물밀듯이 밀려옴에 따라 미용에 대한 의식도 급격히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헤어 스타일과 복식만이 급변했을 뿐이었고, 일반 여성들의 화장에 대한 자세는 썩 소극적이어서 광복후 일본과 유럽 등지에 나가 있던 사

52) 전완길, 앞의 책, pp.99-100.

53) 민봉기외, 한국생활 문화100년, 장원, 1995, pp.90-92.

람들이 귀국하면서 마사지 기법이 국내에 보급되는 정도였다.⁵⁴⁾

한편 당시에는 선진 외국과의 활발한 문화교류로 외국 영화도 수입되고 영화제작(무성 영화 : 1903년, 천연색 영화 : 1949년)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영화에서 아름다운 여주인공이 보여준 머리 모양이나 차림새가 유행을 하였다.⁵⁵⁾

일제시대 말기의 멋쟁이 여성들 사이에는 벌써 기초화장으로 바니싱 크림을 쓰는 것이 일반화 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콜드 크림으로 마사지하여 피부가 윤기나는 화장이 유행되어 그 화장법이 보급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흰 분가루를 바르는 뿌연 화장법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갖는 매끈하고 번들거리는 화장법이 급속히 퍼져 나갔다.



[그림30] 1950년대 화장품광고

1945년 이후 1950년대의 화장품 제조 기술은 구전 또는, 비방으로 전해내려 오는 처방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와 아울러 50년에 터진 한국전쟁 등 혼란기에 편승해 밀수입된 외국 제품이 시장에 범람함에 따라 이를 모방 생산하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화장품을 제조할 원료자재가 극히 부족한 시대여서 화장품 업체는 제품의 사용 감이나 유화 안정도 및 피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채 단지 피부의 보습기능을

주고 제품형태를 유지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수준에서 제조된 당시의 화장품들은 백분, 크림, 유액, 화장수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중요한 원료로서는 일부 왁스 성분 및 오일, 향, 글리세린 정도였다. 1950년대 잡지 <여성계> ⁵⁶⁾에 화장과 스타일에 관해 다음과

54) 이능희, 태평양50년사, (주)태평양화학, 1995, p.463.

55) 김희숙, 앞의 책, p.75.

56) 여성계, 여성과 스타일의 창조(여성미의 조화를 위한 노트), 1957, 62호, pp.186-187.

같이 쓰여있다. “여성에 있어서 미(美)라는 것은 한시라도 떠날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이 귀중한 것이다. 세계의 문명이 개화 되는 곳 처놓고 여성의 미를 가지고 떠들어 대지 않는 곳이 없다. 여성은 아름다워야 하고 아름다워 져야 한다는 본능적인 욕망이 크다. 화장의 역사를 보면, 살결을 희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그 때문에 분백분을 썼고 특히 짙은 화장에는 수백분과 연백분을 사용하였다. 그후 다시 휘안다-손 이라는 크림과 백분의 중간 화장품을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전에는 살의 기름끼를 흡수하는 무유성(無油性)의 바니싱 크림이 압도적으로 사용됐지만 그 후에는 진화(進化)되어 살결 그 자체를 좋게 한다는 의미에서 콜드 크림과 홀몬 크림을 더욱 많이 쓰게 됐다.”

신미(新美)오바 홀몬 크림 애용자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여성중 60%가 외래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었다.⁵⁷⁾ 신미오바 홀몬크림 선전 중 “언제까지나 젊고 어디까지 아름답고..”라는 문구는 미에의 추구를 호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화장품을 쓰는 계층이 젊은 여성에 많았는데 중년부인 층으로 확대되었다. 여성의 살결의 노출이 확대되어 화장은 얼굴뿐이 아니고 머리끝부터 손톱까지 돈을 쓰고 전신 미용까지 하게 되었다. 겨울철의 화장법⁵⁸⁾으로 겨울철 화장은 밀 화장이 중요하다. 겨울철에는 지방의 분비비가 적은 까닭으로 지방성 화장품을 사용하여 얼굴에 윤기가 나는 화장을 하여 피지(皮脂)의 분비가 적은대신 화장품으로 보충한다. 화장수도 유액도 지방성을 사용하고, 가루분도 습윤성이 있고 윤택이 나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유성백분(油性白粉)을 사용하면 화장효과는 나지만 모공을 막아서 피부의 호흡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루쥬칠한 입술이 튼 것은 보기 흉하므로 취침 전에 콜드크림이나, 올리브 오일을 입술에 바르고 자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안전하다. 취침할 때 이불을 쓰고 자는 것이 입술트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라고 겨울철의 미용법에 관해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1950년대는 서구에서 로큰롤 탄생과 더불어 총천역색 영화 「분홍신」, 「파리의 아메리칸」

57) 화장품선택의 메모, 이봉훈, 여성계, 1958, p.189.

58) 미용교실, 임정선, 여성계, 1958, pp.231-232.

등이 상영되면서 여성들의 메이크업 패턴도 달라졌던 시대이다. 195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영화관이 여러 곳에 신축되었고 여성들은 영화에 의해 외국의 패션을 친근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⁵⁹⁾

5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사용되던 빨간색의 립스틱이 핑크 계통의 립스틱, 화운데이 손으로 바뀌어져 쓰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영화가 컬러로 된 영향도 있다고 하겠다. 동시에 굵고 확실한 눈썹이 여성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이 눈썹과 더불어 그 쇼트 헤어 스타일이 먼저 멋쟁이 여성의 스타일로서 일반 여성에 퍼져 나갔다.

2 선(線)에 의한 표현 (1960-현대)

1) 중흥기

60년대의 화장문화는 일본식 대신에 미국식 신화장이 유입되었다. 60년대 화장문화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유분이 많은 액체 타입의 라놀린 오일을 조금 덧발라 더욱 광택있는 피부표현을 하는 화장으로 피부에 중점을 두었다. 날씨가 쌀쌀해 지면서 거칠어지곤 하는 피부를 구원하기 위해 등장했던 콜드 크림은 얼굴에 바르고 가볍게 마사지 한 후 준비해 둔 거즈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내곤 했다. 그로 인해 노폐물이 씻겨지고 거친 피부가 부드러워 지고 윤기를 되찾게 된다는 것을 화장품회사들은 꼼꼼하게 광고했고 사용법을 계몽하기도 했다. 콜드크림으로 닦아낸 피부에 다른 화장품(몇몇 등장했던 미백제나 영양 크림)을 바르도록 안내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다단계 피부 손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⁶⁰⁾ 1966년 『여원(女苑)』 9월호에 보면 그을은 피부의 손질법에 그을린 살결을 표백해서 원상 복귀 시키는 누구나 손쉬운 파

59) 전완길외, 앞의 책, p.99.

60) 가야미디어, 앞의 책, p.208.

크법 5가지(홍차파크, 오이파크, 당근파크, 우유파크, 과즙파크)를 소개하였다. 둘째는 눈을 강조한 화장으로 눈화장은 청색 아이섀도우를 조금 바르거나 아이 라인만으로 눈의 윤곽을 강조했다. 색조화장에 대한 인식으로 음영을 깊게 보이게 하는 입체 화장이 시작되었다. 아이 섀도우가 60년 경부터 들어왔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양인에게는 푸른 섀도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으나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성 잡지에서는 동양인의 평면적인 얼굴보다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유행 섀도우 사용방법과 그리는 법이 소개되었다. 1968년 『새농민』⁶¹⁾이라는 잡지에 소개된 여름 화장법에 대해 간추려 보겠다. “땀에 지워지지 않는 화장법에는 판 케익 화장으로 스폰지에 물을 묻혀 고루 펴서 바르는 간편한 이 판 케익 화장은 여름철 화장법으로 적합하다고 서술하였다. 화운데이션 화장법에는 화운데이션 크림을 얼굴에 고루 편 후에 부드러운 수건으로 화운데이션 크림을 닦아 내고 파우더 화장을 얹게 하는 화장법으로 투명 화장법의 효과를 나타낸다. 썬 스크린 화장은 보기 좋게 고을르기 위해 2-3시간 마다 썬스크린 크림을 발라주라고 하였다. 여름 화장에는 눈화장을 시원해 보이도록 눈썹을 가늘게 그리고 아이 섀도우 빛깔은 하늘 색 계통, 입술은 핑크나 오렌지 계통이 무난하다.”라고 여름철 화장법에 대하여 적어 놓았다. 피부 색깔은 해방 전후의 뿌옇게 분바른 피부색에서 핑크 계열로 바뀌었다가 다시 입체 화장이 들어오면서 한국인의 피부에 맞는 오클계의 화운데이션이 보급되었다. 즉 서양인의 핑크계 화장과는 다른 질감을 만드는 오클계의 화운데이션 화장법이 보급된 것이다.⁶²⁾

1961년 7월 ‘특정외래품 판매 금지법’⁶³⁾ 제정에 의한 일대 전환기로 근대 화장품 업계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960년 이후에는 화장품의 기능이 세분화되고, 바니싱 타입의 크림과 백분의 소비량이 격감한 반면에, 액상 색분(화운데이션)의 수요가 급증하였으

61) 새농민, 1968, 7월호, 등에서 돌아온 여름화장, 임정선, pp.112-113.

62) 김희숙, 앞의 책, pp.78-79.

63)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은 5.16 군사혁명으로 결성된 국가재건최고위원회가 PX물품과 밀수품이 있는 한 국내 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판단, 외제품의 반입과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며, 연지도 고행(스틱)으로 변모하여 소비량이 급증하였다.

1960년대는 영국의 메리 퀴트가 미니 스커트를 내놓으면서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5년 짧은 쇼트 커트의 머리에 미니 스커트를 입은 윤복희가 귀국하면서 본격적으로 쇼트커트와 미니스커트의 붐이 일어났다.

1970년대에는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함께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때다.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긴 결과였다.

화장은 우아하고 품위있는 '여성미'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개성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여성적 아름다움이 그 주제였다.

1971년 봄, 태평양화장품은 국내 최초로 메이크업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그 발족식을 조선히텔에서 가졌다. 또 메이크업 쇼를 통해서 그 해의 메이크업 패션을 발표하였다. 캠페인의 타이틀은 '오, 마이 러브(Oh, my love)'였고, 캠페인과 함께 발표된 화장 패턴은 립스틱 색상을 핑크색, 오렌지색을 이용하여 칼라 하모니를 추구한 화장이었다. '오, 마이 러브' 메이크업은 투명한 피부 화장, 가늘고 짧은 눈썹, 둥글고 깊은 눈매를 강조하고, 그때까지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볼연지 화장을 함으로써 부드러운 여성미를 더해 주는 화장법이 었다.⁶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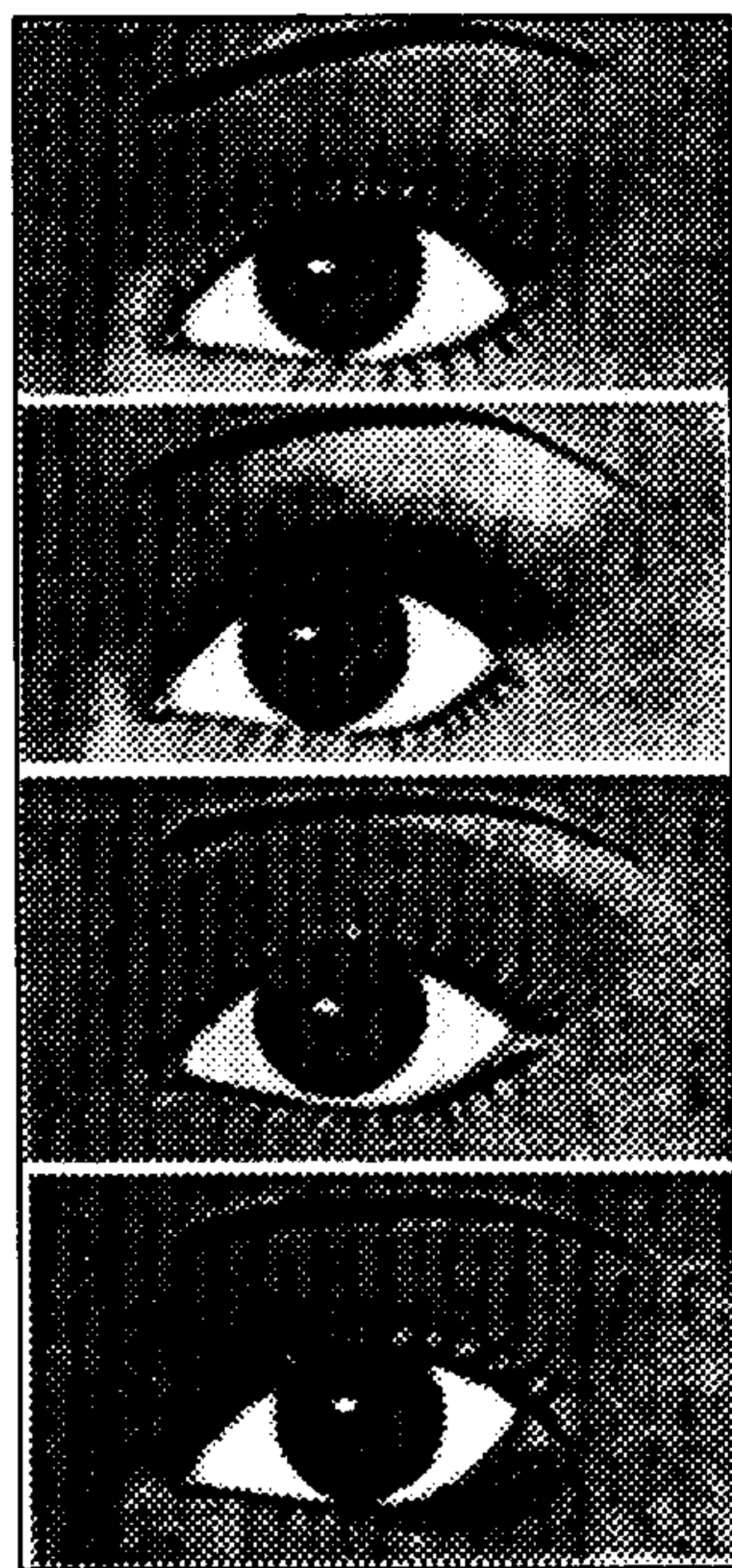
캠페인 대상 화장 패턴에서 보인 유행 색과 칼라 크리에이션은 어디까지나 태평양이 독자적으로 창안한 것으로 당시의 칼라 크리에이션은 빨강, 노랑, 파랑 3원색으로 만든 색상환을 이용하여, 같은 계열의 색, 또는, 서로 보색 관계에 있는 색으로 배색하여 색상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러한 칼라 크리에이션은 무채색만을 알던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그 동안의 화장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실로 충격적이고 대단한 것이었다.

태평양화학에서 봄에 전개한 뷰러브(beauty and love)의 줄임말 메이크업은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여성미를 되찾는다는 뜻에서 가장 여성적인 미를 표현한 화장이었다. 메이크업

64) 이능희, 앞의 책, p.120.

이미지로 코스모스와 같은 여자다움을, 일곱 가지로 나눈 얼굴형에 각기 다른 볼화장을 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얼굴 모양을 수정하기 위하여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볼연지가 이때에 화장의 필수품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1971년도 유행색조는 핑크, 보라빛이 많았었다. 특히 립스틱과 아이메이크업, 화운데이션을 하나로 묶은 종합적인 화장이었다. 그 중에서도 눈화장에 중점을 두었었다. 그리고 아이섀도우, 립스틱에 펄(반짝임)의 배합도 처음으로 나타났다. 펄이 많이 보급되었던 시기이다. 1972년도의 화장은 자연스러우면서 생동감이 있는 느낌을 첨가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간(낮, 밤), 장소(분위기), 목적에 맞는 개성있는 화장을 하게 하였다. 부분화장 즉 아이섀도우, 립스틱, 네일 에나멜의 색상이 옅고 부드러운 색조에서 짙고 선명한 원색계의 색상으로 변했다. 녹색과 오렌지색의 콤비네이션이 유행색 이었다. 1973년의 화장은 1973년 이전의 여러 가지 화장법과 유행을 차분히 정리하여 여성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여성적”인 것에 하나로 묶었다고 볼 수 있다. 피부색은 약간 색상을 강조하여 우아한 흰 피부 또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생기를 주어도시, 농촌, 또는 옥외, 취미, 환경에 대한 빛깔을 활용했다. 눈화장은 부드러운 색조로 색이 옅어지고 여러 가지 색을 바르지 않고 한가지의 색을 발랐다. 그대신 속눈썹의 화장이 강조되었다. 눈썹은 길지 않고 짧고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특징이 있다. 입술화장은 색이 짙어진 경향이다.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주면서 뚜렷한 인상을 느끼게 하는 화장법이다. 화장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크고 깊은 눈매, 가늘고 옅은 눈썹그리기, 작게 보이는 듯한 뚜렷한 입매라고 할 수 있다. 1973년에는 우아한 여성미, 건강한 여성미로 집약시켜 아이섀도우 색이 옅어지고 립스틱의 색깔은 짙어져 핑크, 오렌지, 레드 뿐 아니라 벽돌색, 브라운, 딸기빛 등 립스틱 색상이 다양하였다. 1974년도에는 1920-1940년대의 기품있는 여성상을 현대감각에 맞게 변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눈 화장과 입술 화장이 일반화되고 화장색상을 다양화시킨 해이다. 전체적으로 선보다 면을 중요시한 부드러운 화장법이다. 눈썹도 너무 가느다란 모양에서 약간 도톰하면서 점차 끝쪽은 가늘게 하였다. 눈화장에서 아이섀도우 색은 2가지 색상을 사용하여 짙고 옅은 색의 사용법으로 하였다. 그리고 눈꼬

리쪽에서 눈아래로 조금 둥글고 옆게 펴 바른다. 피부색 표현, 아이새도우, 볼연지 등의 면을 이용한 섬세한 화장에 중점을 둔다. 75년은 '여성의 해'로 선포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두드러졌다. 이 해에는 색채화장이 생활화되기 시작했다. 눈에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너구리 눈 같이 검게 윤곽을 칠한 눈은 좀처럼 볼 수 없게 되었고 대신 인조 눈썹 붙이기가 붐을 이루었다. 인조 눈썹의 붐도 과거의 유행이되어 갈 때 파스텔조(調)의 크레온이나 아이 펜슬을 사용하여 옆게 펴서 소프트 하면서도 입체감을 보이는 것인데 아이새도우를 주제로 한 새도우 메이크업이다. 전체적인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인조 눈썹을 안 쓰고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강조하며 자연스러운 점을 중요시 하였다. 경우에는 액체 속에 가느다란 털같은 것이 섞여 있는 마스카라를 사용하여 속눈썹을 길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⁶⁵⁾



[그림31] 눈화장법
향장, 1979, 3월호

1976년은 전반적인 패션의 경향이 서양적인 분위기에 동양적인 분위기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화장 패턴도 동양인의 얼굴에 맞게 자연스럽게 변해갔다. 색상도 동양적인 경향으로 부드러우면서 침착한 색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화장품 회사 사이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해이다. 화장은 입술과 눈매에 포인트를 두는 포인트 화장 중심으로 더욱 세련되게 발전하였다. 한편 이때부터 보디 제품이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제품은 바블바스와 보디로션이었다.

1977년은 획일적인 인형 같은 아름다움(beauty)에서 개성을 매력(charming)으로 받아들이는 패션 자유화가 시작된 해이다. 이 해는 화장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눈 바로 밑이나 콧날에 적당하게 하이라이트를 주어 인상이 밝게 보이도록 하는 화장법이 강조되었다. 1978년은 혼

65) 여성중앙, 1975, 4월호, pp.288-290.

하게 사용되던 '토틸 코디네이트'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화장 수준과 화장 기술이 점점 향상되고 모든 패션이 조화를 중시하면서, 화장품회사는 메이크업을 토틸패션에 조화되어야 함을 계몽하였다. 이 가운데 TV메이크업은 골격학적으로 얼굴을 T존과 V존으로 나누어 T와V자 모양으로 하이 라이트를 주어 밝은 분위기를 나타내게 하는 화장 이었다.

2) 격동기(수입자유개방)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여성사회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고 사회 참여기회의 확대로 여성자신을 위해 소비할 수 있는 비용이 늘게 되었다. 소득의 증가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생활을 추구하게 되어 레저와 여행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새로운 소비 성향의 사회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경기 호황에 힘입어 풍요로운 소비문화가 정착되자 여성들은 개성미를 표현하는데 눈을 돌렸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 되며 커리어 우먼이 증가하면서 바쁜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고객의 욕구와 화운데이션과 파우더 기능이 합쳐진 파우더 타입 화운데이션 트윈 케이크가 서서히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다.⁶⁶⁾ 80년은 각 TV 방송국들이 컬러 방영을 시작한 해이다. 소비자들의 컬러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한편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였고, 연예인들의 화장이 방송을 타고 일반에게 그대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이 해는 이러한 컬러 시대의 진입에 발맞추어 화장품 회사는 다양한 색상의 제품을 생산했다. TV 컬러방송 시작으로 색 사용에 익숙해진 80년대는 색상의 혁명기였기 때문에 80년대 화장품은 성장의 시대, 칼라가 강세인 시대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 초반에는 짙은 눈썹, 빨간 립스틱, 브라운계의 아이섀도에 의한 보이쉬(boyish)한 이미지가 유행을 주도했다. 또다른 화장기법은 70년대 말 영국에서 시작된 핑크 스타일이 패션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때도 바로 80년대다. 울긋불긋하게 물들인 머리, 전위적인 느낌의 메이크업

66) 김희숙, 앞 의책, P.85.

등이 핑크룩의 등장과 함께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다. 80년대 초에는 존트라볼타가 주연한 '토요일 밤의 열기'가 전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디스코 열풍이 거세게 불어닥쳤다. 메이크업은 화려한 디스코 춤에 어울리는 펄 파우더로 바른 후, 황금색, 노란색 펄 등이 들어간 아이세도를 눈두덩이에 바르고 그 위에 무광택의 자주와 오렌지색 등을 발라 눈에 깊이 감을 주었다. 눈썹의 형태는 직선으로, 입술은 대담하게 둥글게 그려 주었다. 1983년 봄에 펼쳐진 토탈 뷰티쇼에서 메이크업의 기본이 되는 색상에 포인트를 주어 비교적 단조로운 우리나라 여성의 색상 선택에 자극을 주면서도 한국 여성의 피부색에 맞는 색상 연구로 전혀 부담없이 받아 들일 수 있는 화장 패턴 4가지를 소개했다. '1부는 로망스, 봄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섹션이다. 분위기는 신선하고 생기있는 그린과 골드, 옅은 오렌지계의 색조, 2부는 스포티, 여름에 알맞는 핑크레드와 블루의 코디네이션이 강한 햇빛 속에 두드러지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다. 클래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연출한 3부에서 브라운.붉은 벽돌빛의 가을 메이크업을 소개, 4부는 환타지로 신비스러우면서도 화려한 느낌의 핑크 보라계를 강조했다. 토탈 메이크쇼를 오프닝으로 하여 나그랑(Nagrand)화장품이 선보였는데 이름 그대로 자연미에서 극적 효과를 내는 아름다움까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그랑 화장품은 색채학의 연구로 한국인의 피부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을 갖추어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내는 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고 특수 펄을 사용해서 실내 의 어디서나 세련된 화장 효과를 나타내 준다고 한다. 반면 8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표현이 인기를 모아 화장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내추럴 메이크업'으로 눈썹은 자기 자신의 자연스러운 형태로 변했다. 내추럴 메이크업은 한듯 안한듯한 자연스러운 화장법으로 때론 눈이나 입술 등 한 부분에 액센트를 주기도 하였다. 즉 내추럴과 원 포인트 메이크업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메이크업 컬러도 다양하게 핑크와 오렌지빛의 중간 톤으로 코랄 색상, 그린과 황금색의 조화, 오렌지빛 입술 카키, 골드, 벽돌색계의 차분하고 지적인 색상이 등장했다. 1983년 화장품 수입 전면 개방에 앞서 당국은 1979년 5월 대통

령령(제9435호)으로 외자도입법 시행령을 개정해 화장품업계에 대한 외국의 기술 도입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⁶⁷⁾ 수입 자유화의 시작으로 국제적인 감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기가 되고, 선진국의 다양한 색상의 색조 화장품이 수입되면서 소비자는 더욱 세련되고 화장품 회사의 주도하에 선택되던 것이 소비자 중심의 실질적인 개성 표현에 맞게 선택하기 시작했다. 1986년은 간편한 거품 형태의 정발제 '헤어무스'가 도입되어 청소



[그림32]키메라 화장, 중앙일보, 1985

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해이다. 모발 화장품의 생산과 보급으로 많은 여성들이 미에 대한 의식이 달라져 시간은 되도록 짧게, 스타일은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개성을 뚜렷이 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추세에 따라 머리가 정돈되고 외모가 단정해 지고 보다 세련되어져 갔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에 대한 자외선의 악영향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환경오염 방지를 새로운 개념으로 채택한 화장품 개발붐을 이뤘다. 올림픽

을 유치한 1988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여성이라는 위치와 긍지를 새롭게 자각하는 취지에서 가장 한국적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표현한 코리아 환타지 메이크업이 유행되기도 했다.

67) 정부가 외자도입법을 개정, 합작투자를 대폭 개방함에 따라 '의약품 및 화장품제조업 외국인 투자인가'에 관한 내규(보건복지부 훈령 75호)를 개정해 지금까지 5% 이내로 제한했던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50%이상 허용한다는 원칙아래 수입개방과 외자도입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3) 하반기

1980년대부터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상징되어온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경제는 국경을 뛰어넘는 세계화로, 기업은 다국적 기업주의로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의 지구촌은 예전과 달리 훨씬 가까워 지고 있다. 첨단 기기 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정보 전달속도는 가속화 되었고, 각종 대중매체의 홍수에 화장의 경향에 대한 정보도 신속하게 전달받고 있다. 개성화시대로 개인적인 욕구 충족, 미래 지향, 극에 달한 정보화, 풍부한 상상력과 욕망의 세분화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새로운 21세기를 맞는 극도의 두려움과 설레임,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 시대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의 화장 경향은 30년대의 짙고 붉은 입술, 40년대의 뚜렷한 눈매, 오드리 헛번(Audrey Hepbern)의 굵게 강조된 눈썹, 브리짓도 바르도(Brigitte Bardot)의 인조 속눈썹과 반짝이는 분홍빛 입술 등등 모든 과거의 스타일이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되었다.

1992년대에 들어서면 여성특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로맨틱한 스타일과 자유로운 감성의 얹매이지 않는 유연함이 강조되었다. 환경파괴와 생태계의 보존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돌아가기 위한 재활용(Recycle), 생태학(Ecology)이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면서 천연소재를 사용한 자연스런 질감과 색상에 대한 선호가 레이어드, 그런지,⁶⁸⁾ 네오히피⁶⁹⁾ 오리엔탈리즘, 내추럴리즘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융해되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에 조화를 이루는 화장경향으로 색조가 얹어지고 가벼워졌으며 과

68) 그런지(Grunge)는 grungy를 변형해 만들어낸 미국 청소년층의 신조어로럽고 혐오감을 주는 지저분한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된 도시적인 보헤미아니즘이 그 근원으로 여러 겹의 옷을 껴입고 낡고 헤진 빛이 바랜 누더기를 걸치며 거리의 불량자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VOGUE, 1992, 12월, pp.254-260.

69) 1960년대말 기성세대와 기존의 법규, 관습에 반발하여 지리적으로 유동하는 생활 스타일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으로 이들의 스타일이 1992년 패션 테마로 재등장하면서 이를 Neo Hippie Style이라 칭하게 되었다.

거의 히피 풍을 재현하여 투명하고 거의 그리지 않아 희미하게 보이는 얇은 눈썹과 흐린 입술색이 주조를 이루었다.

1995년은 순수와 생명력을 잃기 쉬운 바쁜 현대여성에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활기찬 생명력을 주는 그린이 부각되었고 베이지, 핑크, 오렌지, 로즈 컬러 등 피부 본래의 투명감을 살린 화장이 부각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미래지향적인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보는 로맨틱 분위기와, 절제된 디자인을 통해서 “단순함이 최고이다”(Simple is best)라는 말이 실감나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미니멀리즘이 공존하고 있다. 깨끗한 이미지를 전달해 새 밀레니엄에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단순미를 으뜸으로 치는 미니멀리즘이 부각된 것이다.

메이크업을 전혀 하지 않은 듯한 투명하고 내추럴한 피부에 복숭아빛 양볼, 아이라인을 전혀 강조하지 않고 마스크라만 살짝 바른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립그로스만 살짝 바른 립 메이크업이 유행이었다. 전세계적으로 투명화장이 인기를 얻은 것도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리퀴드 파운데이션, 트윈 케이크, 페이스 파우더를 차례로 바른후 립라인을 진하게 그리는 방식으로 미를 입히는 화장기법은 과거의 얘기가 되었던 것이다. 자신의 개성을 짙은 화장속에 숨기는 방식을 떠나 자연스럽게 건강미를 표현해 주는 21세기형 미니멀리즘 화장이 새롭게 자리를 잡은 것이다. 여성의 미를 정숙함 보다는 실용주의에 뿌리를 둔 활동성에서 찾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미의 기준은 상업성과 맞물려 이처럼 눈부실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어둡고 지루했던 IMF한파의 무게를 벗어 던지고 화사하고 밝은 색상인 핑크, 노랑, 그린 등 파스텔 톤을 국내 화장품 및 패션업계에서 앞세우고 있다. 젊고 탄력있는 피부를 영원히 간직하려는 소비자들의 욕망을 반영, 화장품 업체들은 주름을 없애 주고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

하버드대 낸시에트코프(Nancyettecofe) 교수는 “미에 대한 갈망과 선호 기준은 이미 유

전자에 심어져 있다.”⁷⁰⁾라며 미모에 대한 선호는 환경, 교육 등에 따른 후천적 습득이 아닌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라는 것이다. 미의 변화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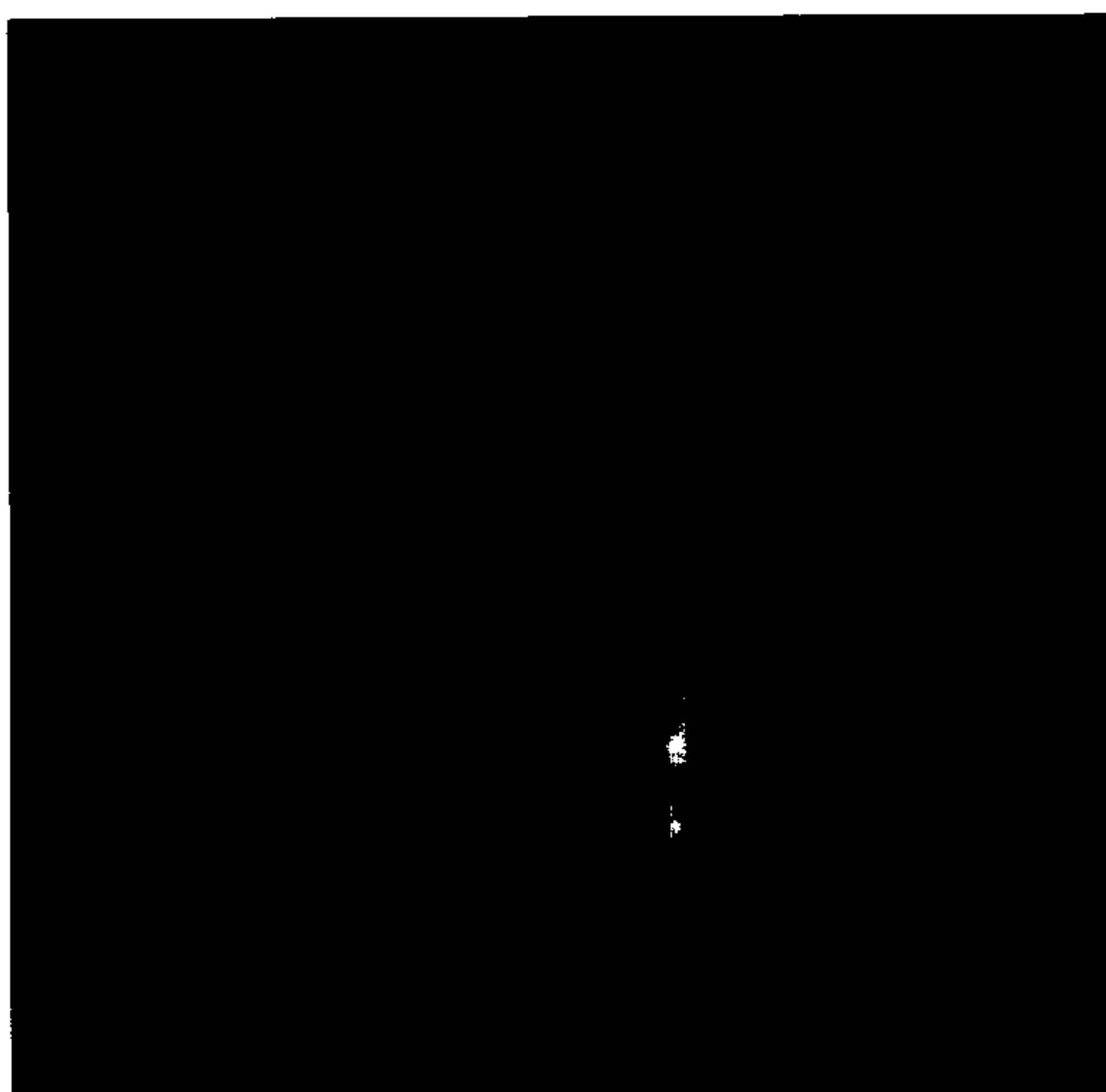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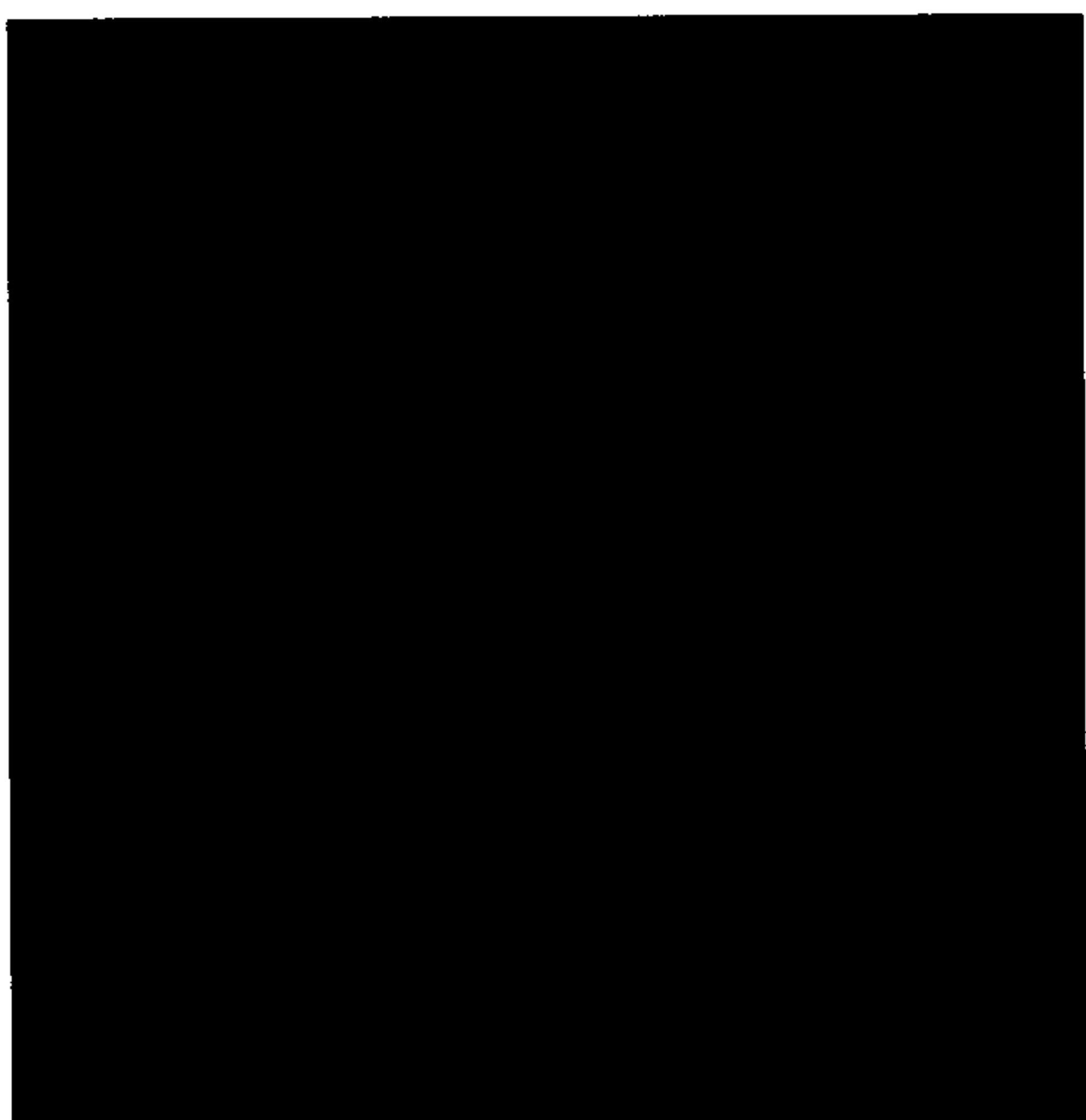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며 미(美)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개념과 기준이 바뀐다. 과거 아프리카에서는 입술이 두툼할수록 미인대접을 받았고, 중국에서는 한때 양귀비처럼 둥글고 도톰한 얼굴을 가진 여성이 인기였다. 삼국시대에 완벽한 외모를 표현하는 대목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살결이 곱고 탐스럽다”는 뜻인 “염(艷)”자가 나와 ‘피부 미인’이 으뜸이었으리라고 짐작 된다.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여인의 얼굴은 대체로 풍만한데 눈썹이 초생달 같고 눈은 은행알과 비슷했으며 코는 솟고 입술은 작았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이같은 미인형이 이어지는 한편, 불교의 영향으로 관음상(觀音像)같은 격조가 보태졌다. 조선시대의 화가 김홍도, 신윤복등이 남긴 많은 미인도에 나타난 미인의 몸매는 적당히 풍성한 상태로 허리가 잘록하고 목이 길게 드러났다. 얼굴은 좀 가름하고 둥근 계란형이었다. 이마는 흰칠하게 넓고 피부는 흰눈처럼 깨끗했다. 젓가슴은 ‘연적처럼’ 작고 소담스러워야 미인이었고 눈과 코도 대체로 작아야 했다. 특히 조선시대 고전소설에서 절세미인으로 묘사된 여주인공의 나이는 대개 ‘10대 미성년자’였다. 국색(國色)으로 꼽힌 심청이는 그때 15살이었고, ‘옥랑자전’ ‘춘향전’등의 주인공은 ‘이팔청춘’인 16살이었다. 조흔 풍습 탓에 ‘꽃다운 처녀’는 당연히 15-16살이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미인의 기준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정설이다. 문명이나 환경이 바뀌면 미의 기준도 변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모의 기준이 얼굴에서 날씬한 몸매로 바뀌었다. 이는 우리사회가 본격적인 소비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고 대중매체의 이미지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⁷¹⁾고 분석했다. 이와같이 얼굴을 우선시 하던 바로 앞세대의 미인관인 형에의한 미의식에서 ‘몸매 우선 미인관’인 선에 의한 미의식으로 바뀌고

70) 한국경제신문, 1999년, 3월 26일.

71) 한설아, 여성의 외모 관리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대 석사논문, 1998,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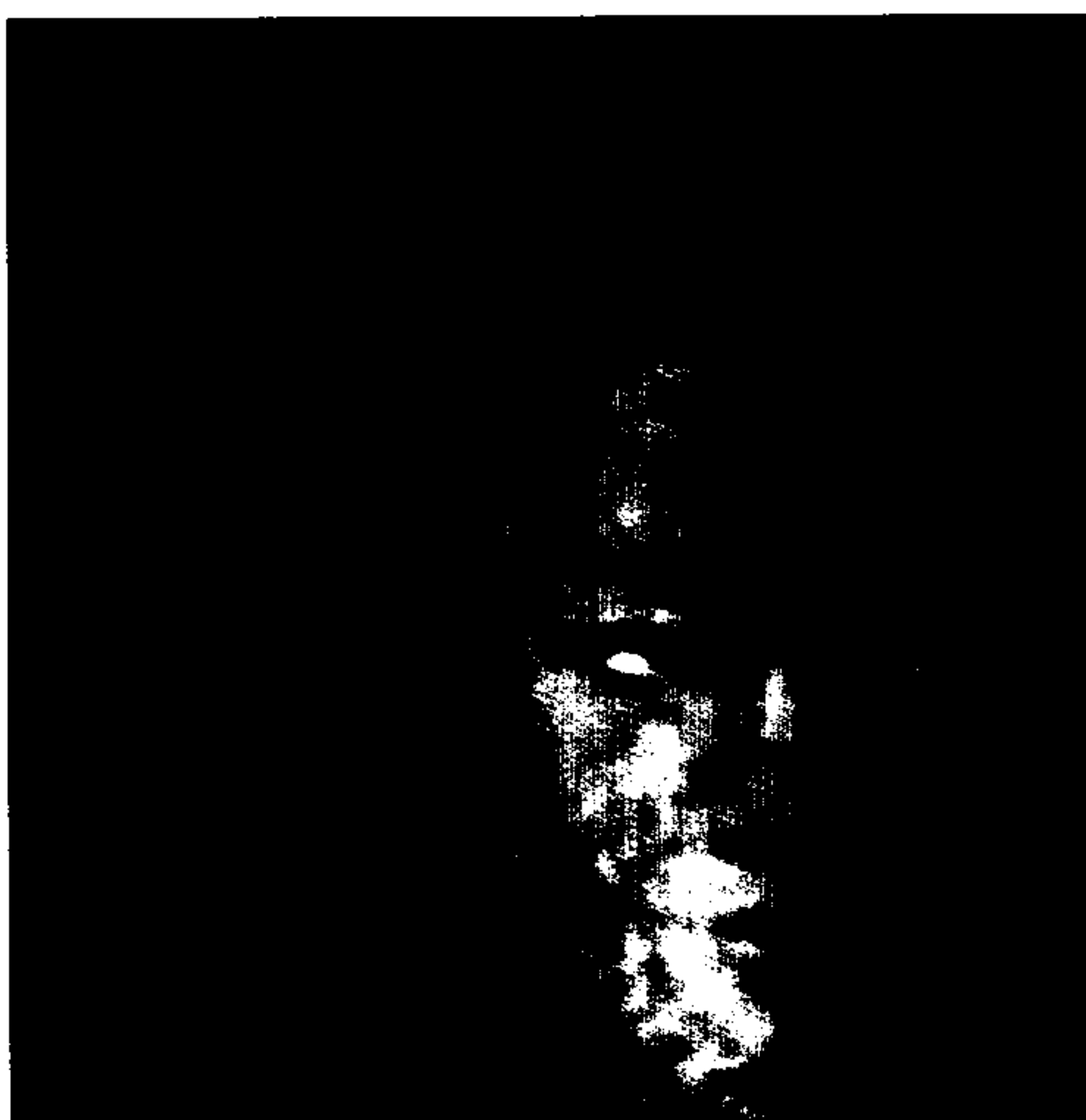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시 여기지만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은 겉모습의 아름다움 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값지게 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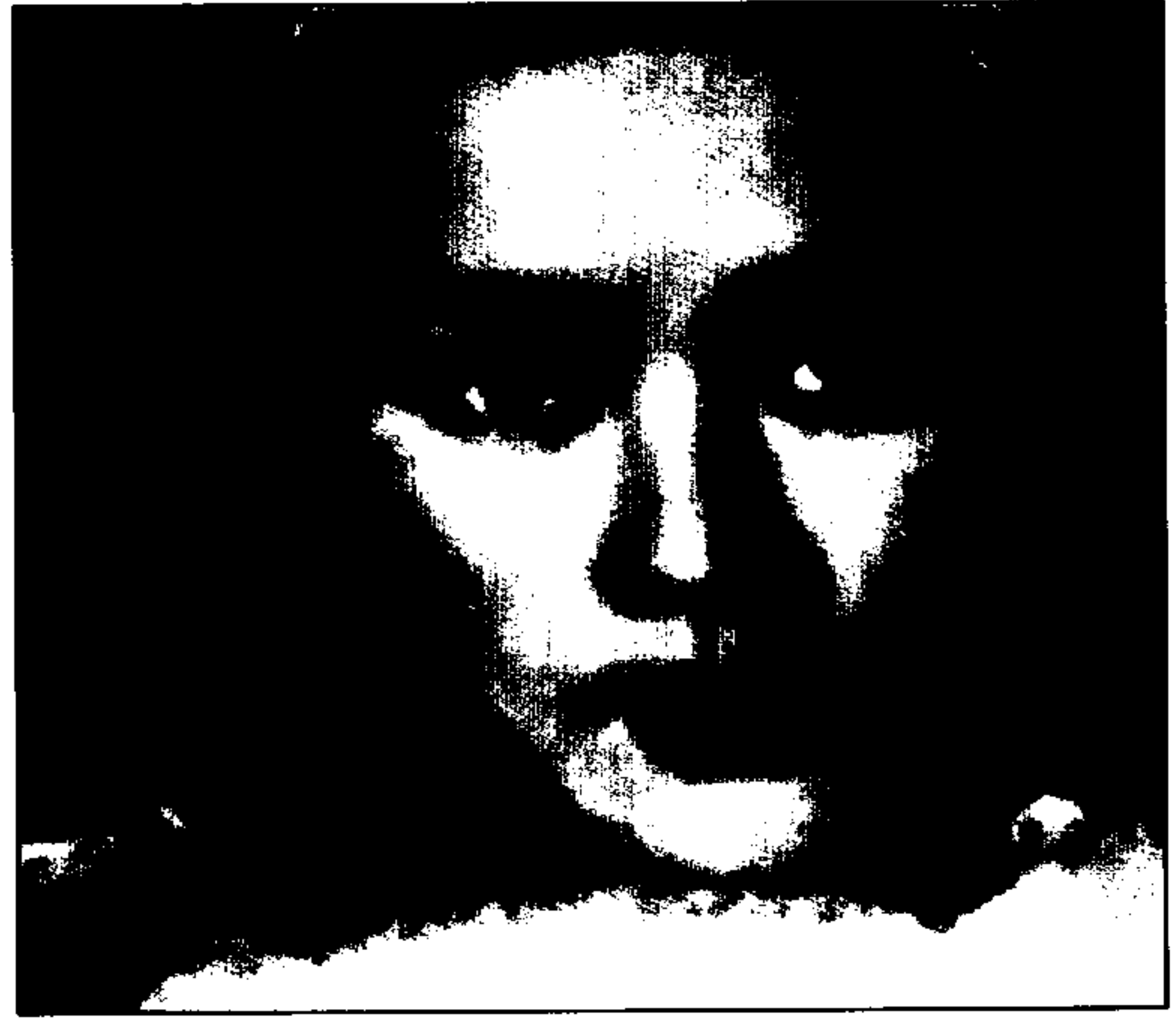
미니멀리즘이 화장에 미친 영향을 보면 모던함과 심플함이 중심이 되어 인간본질을 돌아보는 의미로 나타났으며 단순하고 깨끗한 이미지와 현대적인 감각으로 미니멀리즘을 나타내었다. 색상에 있어서도 모노톤 에서부터 섬세하고 창백한 분위기로 정지된 듯한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최소의 디테일로 신선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 단순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미니멀리즘을 표현하였다.



[그림33,34,35]
1950년대의 여성계표지 화장

▼▼[그림36, 37]
1960년대 여원 표지 화장





▲[그림38, 39, 40]
1970년대의 여성중앙 표지화장

▲[그림41, 42, 43]
1970년대의 화장품 광고화장



▲[그림47, 48]
1990년대의 잡지 표지화장

▲[그림44, 45, 46]
1980년대의 잡지 표지화장

IV. 작품제작에 있어 미니멀리즘의 활용

1. 작품기획의 배경

화장은 그 기원이 예술의 발생과 같으며 형태상으로는 생활과 더욱 밀착된 관계를 맺어 왔다. 따라서 화장은 인간의 미적 가치와 태도를 포함한 정신의지와 의식이 표상화된 조형물임이 분명해 졌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복잡해 지고 생활방식이 다양해 질수록 이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미를 으뜸으로 치는 미니멀리즘은 21세기에 부각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니멀리즘은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계문명과 테크놀러지의 발달로 이전에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조형에 이르는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현대 문명의 인위적이며 기계적인 틀에서 벗어나, 자연과 근원으로 돌아가고픈 현대인들의 갈망이 표현된 것이다.

미니멀리즘의 기본은 절제된 디자인이다. 다양한 컬러가 아닌 모노 톤을, 장식적인 디자인보다는 실용적인 디자인을 선호한다. 외형적으로 무미건조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단순함 속에서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미니멀리즘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알맞는 감성이다. “시원한”이란 뜻의 “쿨”(Cool)은 미니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로 깔끔한, 절제된, 도회적인 세련미를 담아내는 기분 좋은 느낌을 전해주는 미니멀리즘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니멀리즘을 활용한 화장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보다는 실제 제작으로 보여줄 필연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럼 여기서 미니멀리즘을 활용한 새로운 미적 창조인 화장에 적용시켜 보기로 한다.

2 작품기획 및 활용

작품 I

- ① 작품의도 : 미니멀리즘의 조형성의 특징인 단순성을 나타내는 것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색채의 단일화이다. 순수한 이미지의 흰색, 이는 깔끔하고 단정하며 소박한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백색 선호의 미의식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를 응용할 필요가 있었다.
- ② 작품발표 : 2000년 4월, an an
- ③ 모델명 : 정재인
- ④ 작품 설명
 - i) 피부표현 : T존부위를 밝게 하기위해서 메이크업 베이스 화이트를 사용 하였다. 얼굴의 자연스러움을 살리기 위해 퍼짐성이 좋은 리퀴드 화운데이션을 바른 후 피부색과 유사한 파우더를 가볍게 퍼 바른다.
 - ii) 눈썹형태 : 눈썹 결을 따라 갈색 아이섀도우로 자연스럽게 그려준다.
 - iii) 눈화장 : 크림 타입의 섀도우는 색상이 훨씬 부드럽고 표현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다. 크림 타입의 화이트 섀도로 눈두덩에 선명하게 퍼 바른다. 눈밑 점막 부분에 화이트를 칠해 주어 눈동자가 크면서 맑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 검정 아이라인은 속눈썹 가까이에 그린다. 검정 마스카라를 충분히 발라 길고 또렷한 속눈썹으로 표현한다.
 - iv) 볼화장 : 브러쉬에 적당량의 핑크색상을 취해 볼 뼈 윗부분에 둥글리 듯이 퍼 바른다. 한번에 진하게 표현하지 말고 조금씩 여러번 발라야 자연스러움이 나타난다.
- 입술화장 :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입술라인은 그리지 않았다. 꽃 핑크를 입술에 바른 후 그 위에 투명 립글로스를 발라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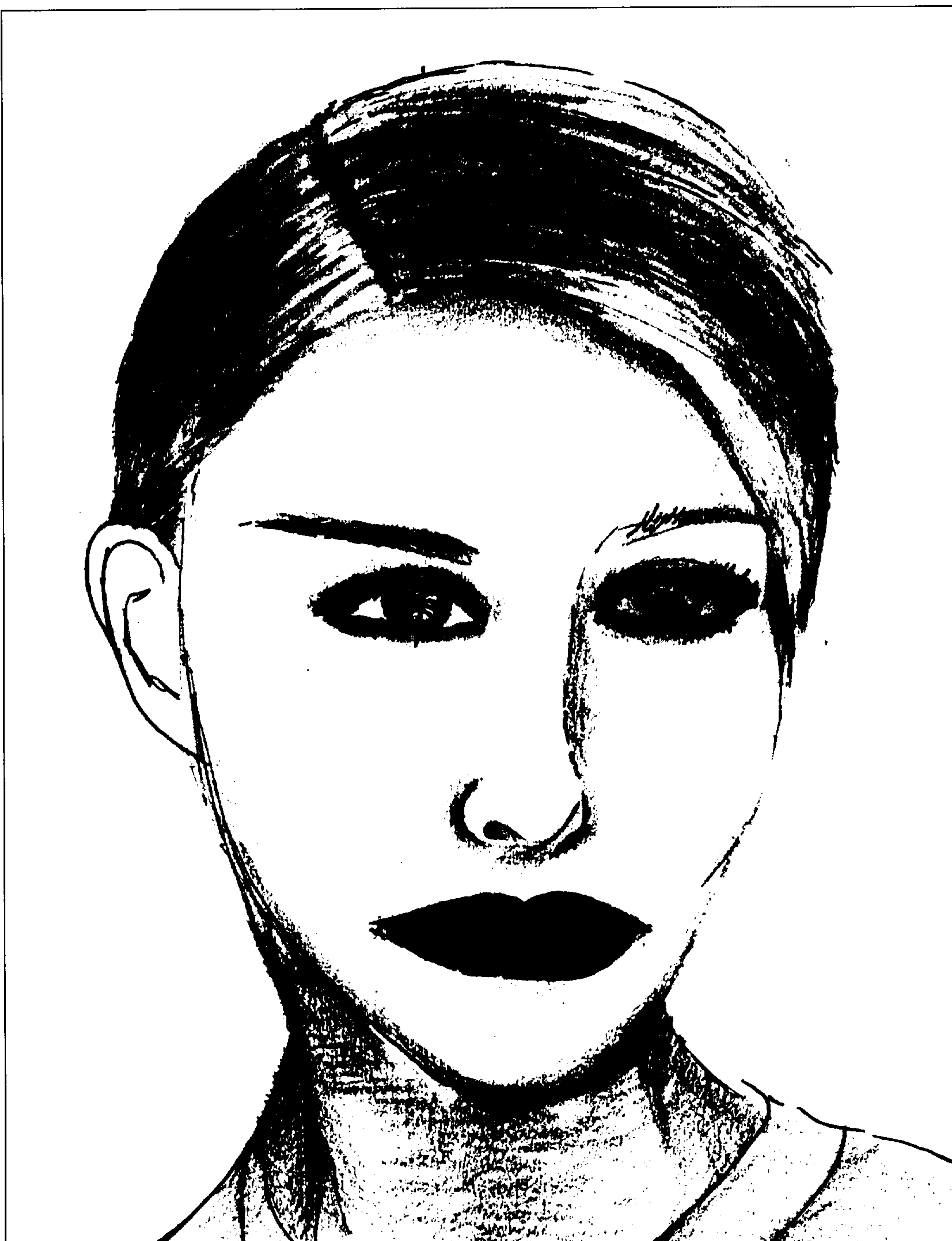
[작품1] 일러스트



[작품1]

작품 II

- ① 작품의도 : 화사하고 순수한 이미지 표현. 마치 얼굴에 피어난 정원을연상시키듯 에머랄드, 터키색, 오렌지, 꽃분홍같은 원색을 이용하여 감성적인 여성스러운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 ② 작품발표 : 2000년 4월, an an
- ③ 모델 명 : 이유리
- ④ 작품설명
 - i) 피부표현 : 얼굴의 투명함이 깨끗하게 드러 나야 하기 때문에 메이크업베이스 살구색을 바르고 T존부위에는 화이트 메이크 베이스를 발라준다. 모델의 피부색과 가장 유사한 크림베이지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얇고 투명하게 바른 후 투명 파우더를 가볍게 바른다.
 - ii) 눈썹형태 : 각이 있는 얼굴이어서 눈썹을 약간 둥글리듯이 브라운연필로 길게 빼준다.
 - iii) 눈화장 : 연두색 아이섀도우로 눈위에 베이스처럼 넓게 펴 바른다. 초록 계열의 파스텔 아이섀도우로 눈 끝쪽에 포인트를 준다.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그라데이션을 해준다. 눈동자 가운데에 노랑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준다. 눈매를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 초록색과 검정색 아이섀도를 섞어서 라인을 그려준다.
 - iv) 볼화장 : 핑크와 오렌지를 섞어서 브러쉬에 묻혀 광대뼈에서 볼 안쪽을 향해 부드럽게 둥근 모양으로 터치하여 피부표현을 화사하게 한다.
 - v) 입술화장 : 펄이 가미된 핑크 립글로스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입술에 펴 바른다.



[작품2] 일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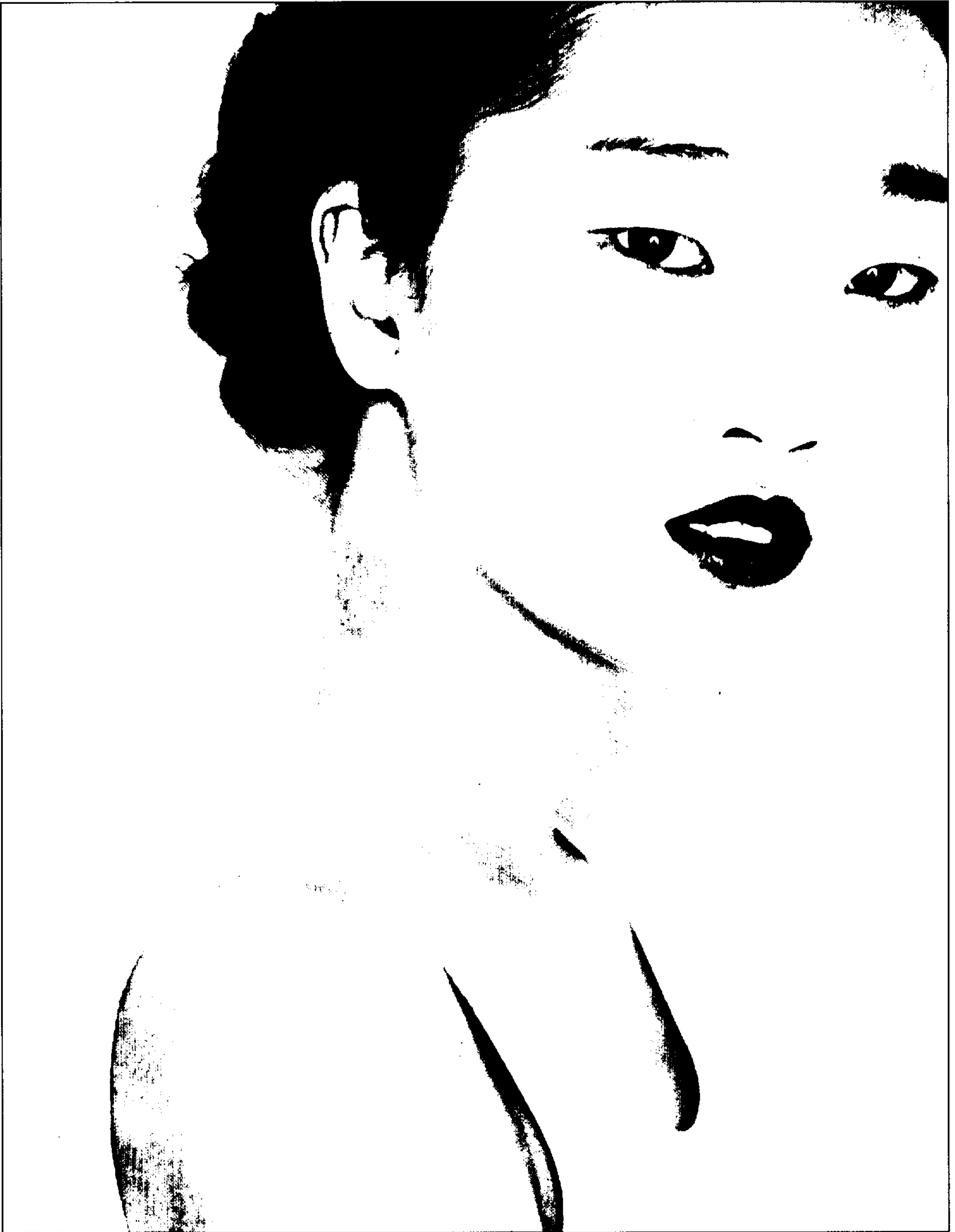
[작품2]

작품Ⅲ

- ① 작품의도 : 2000년대는 종이 느낌의 소재, 플라스틱과 같은 미끄러지듯 차가운 소재, 광택 소재등 여러 가지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시기이다. 투명 효과와 빛의 효과로 인체의 단순한 형태 미를 표현하는 특성으로 광택과 글로시한 이미지를 강조한 화장으로 피부표현은 과거의 피부잡티를 완벽하게 커버하는 두꺼운 메이크업에서 탈피해 가볍고 미래적인 광택감으로 윤기를 주었다.
- ② 작품발표 : 2000년 4월, an an
- ③ 모델 명 : 장윤주
- ④ 작품설명
 - i) 피부표현 : 미래적인 광택으로 윤기있고 빛나는 화장을 위해 촉촉한 피부 표현이 중요하다. 살구색 메이크업 베이스를 진주알 만큼 덜어 얼굴에 바른다. 펄이 함유된 리퀴드 화운데이션을 얼굴에 바른다. 바세린을 얼굴에 얼룩이 지지 않게 펴 바르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반들거린다.
 - ii) 눈썹형태 : 피부를 거의 드러 내는 화장이므로 눈썹결을 따라 갈색연필로 연하게 그려준다.
 - iii) 입술화장 : 립그로스가 함유된 빨간 립스틱으로 입술에 자연스럽게 펴 바른다. (입술 라인은 그리지 않는다.)



[작품3] 일러스트



[작품3]

작품Ⅳ, Ⅴ

① 작품의도 : 모노크롬 화장으로 연출한 강렬한 입술을 표현해 보았다.

미니멀 아트의 특징인 무채색인 검은 색 계열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단순성과 명료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검정색은 뚜렷한 윤곽선을 잘 나타내 주며 다른 색채를 모두 배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② 작품 발표 : 작품Ⅳ-1996, 5월, 레یدی 경향

작품Ⅴ- 1997, 9월, 레یدی 경향

③ 모델 명 : 작품Ⅳ-변정수

작품Ⅴ-채정안외

④ 작품설명

i) 피부표현 : 콘 실러를 이용하여 잡티를 가려 준 후 화이트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다.

피부표현은 티 하나 없이 꼼꼼하게 베이지 스틱 화운데이션을 바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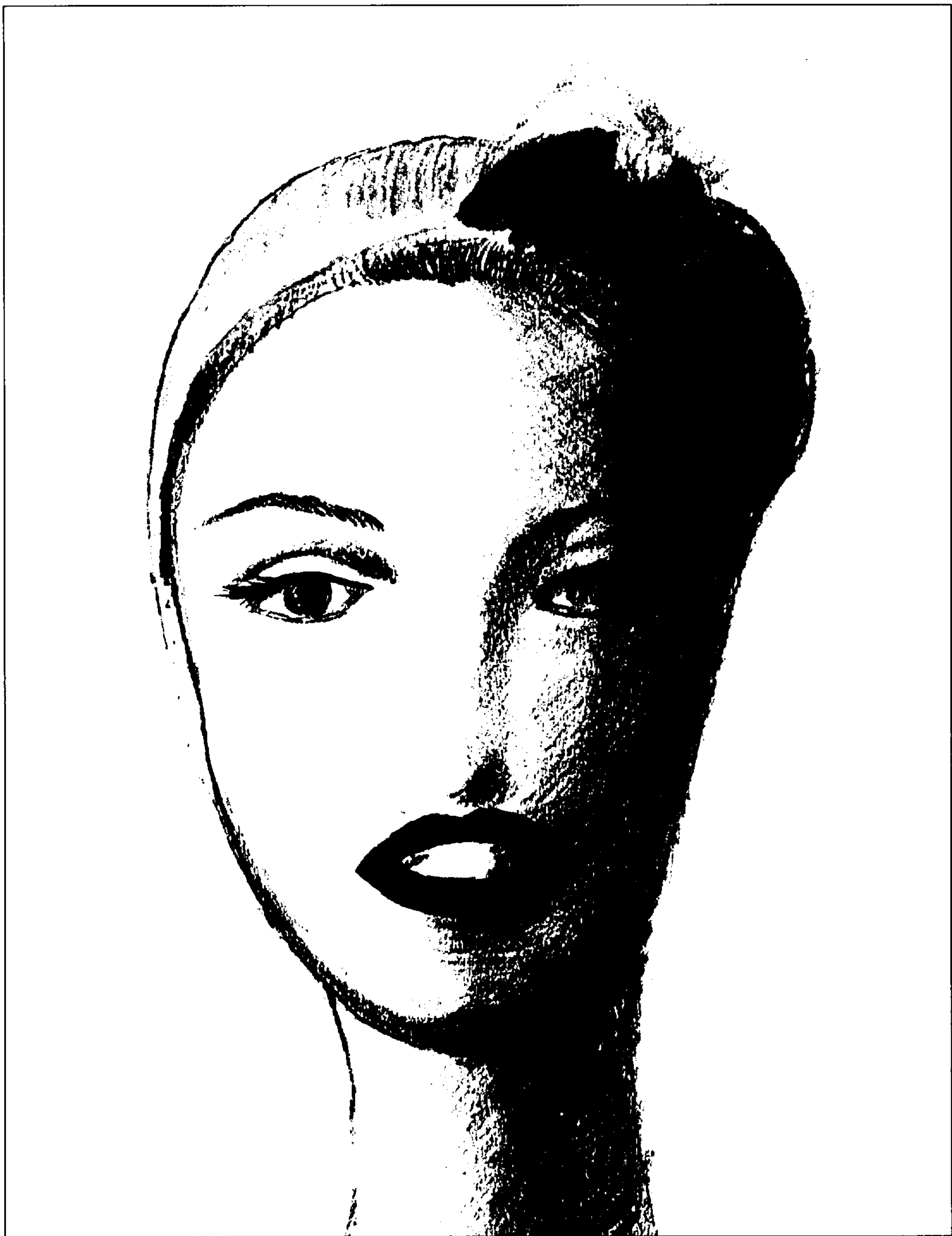
화이트 파우더로 얼굴을 하얗게 표현 해준다.

ii) 눈 화장 : 아이섀도와 눈썹은 그리지 않는다. 검붉은 입술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속

눈썹이 길어 보이기 위해 가짜 속눈썹을 붙여준다.

iii) 입술화장 : 입술을 강조하기 위해 다크 브라운연필로 입술 윤곽을 선명하게 그려준

다. 그위에 검붉은색 립스틱을 바른다.



[작품4. 5] 일러스트



[작품4]



[작품5]

작품Ⅵ

① 작품의도 : 시선을 자극하는 강렬한 립 포인트 화장이 특징이다.

조금은 창백한 듯 한 피부표현에 강렬한 레드 계열의 립스틱으로 입술에 포인트를 주었다. 입술 이외의 부분의 화장은 최대한 자제, 강렬하고 여성스러운 칼라로 풍부한 입술을 연출한 단순한 포인트 화장을 해보았다.

② 작품발표 : 1998, 4월, 레이디 경향

③ 모델 명 : 임효상

④ 작품설명

i) 피부표현 : 깨끗하게 클렌지한 피부에 보라색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소량 발라준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피부를 맑게 표현해 준다. 투명 파우더로 살짝 유분기만 없앤다.

ii) 눈썹형태 : 눈썹은 회색의 연필로 짧고 위로 향하도록 그려준다.

iii) 눈 화장 : 손가락 끝으로 얇은 핑크색을 활용, 눈두덩과 꼬리부분에 얹게 바른다.

iv) 입술화장 : 립라인은 레드 립펜슬로 크고 둥글게 그리고 레드 립스틱으로 꼼꼼히 바른 후, 티슈로 살짝 누른다. 그런 다음 립스틱을 다시 한번 발라 색상이 오래 유지되도록 했다.



[작품6] 일러스트



[작품6]

작품Ⅶ, Ⅷ

① 작품의도 : 동일단위의 반복과 비관계적 구성의 한 형태로 색상의 변화가 없는 단색을 활용, 반복과 연속성의 관계를 표현하려고 했다.

② 작품발표 : 작품Ⅶ-2000년 1월

작품Ⅷ-2000년 2월

③ 작품설명:

i) 화 장 : 바디 페인팅 물감 흰색으로 몸의 굴곡을 이용하여 나선형의 모양이 되도록 표현하였다. 색깔을 칠할 때 강약을 주고 굵기를 달리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작품7]



[작품8]

결 론

화장예술은 한 시대의 사상과 감정 내지는 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시각적 형식을 가진 행위이다. 즉 시대정신을 표출하는 문화적 산물인 것이다. 본 연구는 단순, 절제된 화장문화의 흐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형예술분야인 미니멀리즘의 발생 배경과 의미 및 그 조형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러한 전제적 배경을 토대로 담장에서 미니멀조형성과의 유사성을 유추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니멀리즘은 최소한의 조형수단과 제작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을 함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사조이다. 따라서 미니멀리즘은 어떤 재현적 요소나 장식적 성격으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오브제로서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이며 순수주의에 의 표명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에서의 단순함, 명료함, 그리고 비관계적 구성을 통한 표현의 절제 즉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화장”이란 신체, 특히 얼굴을 중심으로 색과 향을 부여하고 잘 조화시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조형예술이다. 인간이 신체를 장식하여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와 변신하고자 하는 갈망, 나약한 동물임을 위장하고 신격화되고자 하는 욕구 및 정령과의 만남에서 자신을 위장하고, 지위나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화장의 동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동기를 가지는 화장행위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자신감을 얻어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고시대의 단군에서 부터 화장문화가 있었다는 흔적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육체와 정신이 동일하다는 영육일치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얼굴을 단정히 가꾸고 몸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 하게 생각해왔다. 이와같이 내.외면의 미를 일치시킨 사상이 조선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담장에 표현되었다.

조선시대 여자들의 정갈하며, 단아한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내면의 미는 미니멀리즘의 순수성을 내포한 것으로 한국적인 정서와도 잘 맞는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아름다움의 기초인 청결을 매우 중요시하여,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는 일을 첫 일과로 삼았다. 조선시대 화장법은 옅은 색조의 은은한 화장을 즐겨하였다. 사대부의 생활지침서인 「규합총서」에는 여러 가지 두발형태, 열가지의 눈썹 그리는 법, 갖가지 입술 연지 바르는 법도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화장은 색조화장보다는 기초화장에 신경을 썼으며, 은은하며 부드럽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 조선시대의 화장문화는 미니멀리즘의 단순성, 간결성, 순수성 등의 특성과 연관시킬 수 있다.

개화기 이후 수입 화장품이 급증하고 한일합방으로 신문화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화장법이 도입되었다. 6.25 전쟁후 서양 영화의 본격적인 수입이 이루어지면서 미군주둔으로 인한 서양식 문화의 전파로 일본식 화장법에서 서양식 화장법인 입체화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함께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때다.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긴 결과였다.

화장은 우아하고 품위있는 ‘여성미’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개성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보다는 여성적 아름다움이 그 주제였다.

1980년대는 경기 호황에 힘입어 풍요로운 소비문화가 정착되자 여성들은 개성미를 표현하는 데 눈을 돌렸다. 눈과 입술을 강조하는 포인트 메이크업 패턴이 강세를 보였다.

1990년대는 여성들이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인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91년 (주)태평양이 실시한 메이크업 캠페인의 주제가 ‘나의 색을 찾자’는 것이었던 사실이 이런 분위기를 대변한다. 화장품 수요가 급증하자 봄과 가을 2차례 실시하던 화장품사들의 메이크업 캠페인이 사계절로 늘어났다. IMF 한파와 함께 그레이 톤의 어두운 색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으나 2000년 새봄에는 여성들의 입술과 눈에서 화사한 빛의

파스텔 톤이 되살아나고 있다. 90년대 말부터는 날씬한 몸매에다 큰가슴이 미인의 조건으로 급부상했다. 미인의 기준이 얼굴에서 몸매로 옮겨간 배경은 여성운동이 활발해져 사회가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대신 여성을 더 세련되게 억압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같이 얼굴을 우선시하던 미인관인 형에 의한 미의식에서 '몸매 우선 미인관'인 선에 의한 미의식으로 바뀌고 있다.

미니멀리즘의 기본은 절제된 디자인이다. 외형적으로 무미건조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단순한 속에서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작품제작상에 있어 미니멀리즘을 활용한 작품8개는 미니멀리즘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잡지나 광고에 이미 발표했던 작품들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표현하였다. 미니멀리즘의 특성을 토대로 색채에 의한 표현기법, 순수한 이미지표현, 차가운 광택과 미래적인 느낌의 글로시한 이미지표현, 모노크롬 표현, 반복과 연속성의 관계를 표현한 작품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니멀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알맞는 감성으로 외적인 실체와 내적 존재와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활문화로서 뚜렷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21세기에는 화장이 차지하는 문화적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두산 세계 대 백과사전 , 두산동아, 1996.
- 브리태니커 세계백과사전, 한국 브리태니커, 1996.
- 세계문예대사전, 교육출판사, 1994.
- 영한대사전, 금성출판사, 1992.
- 학원 세계 대 백과사전, 학원출판공사, 1993.
- 한국인의 얼굴, 국립민속박물관, 신유, 1994.
- 한국장업 50년사, 대한화장품공업협회, 1998.
- 한국 문화 예술 진흥원, 분장, 예니출판사, 1993.
- 가재창, 패션디자인발상 트레닝, 정은, 1993.
- 강현두,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나남, 1998.
-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답계, 1998.
- 김명자, 화장품의 세계, 정음사, 1987.
- 김원룡, 한국미술전집, 동화출판사, 1980.
- 김희숙,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 김복영, 현대미술연구, 정음문화사, 1985.
- 김원룡, 한국미술사, 범문사, 1968.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3.
-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혜원, 차밍스쿨, 기린원, 1993.
- 박일록, 복장문화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9.
- 박용숙, 한국의 미학사상, 일월서각, 1991.
- 이상우, 동양미학론, 시공사.
- 이은희, 신세대 화장법(미용백과), 동지, 1994.
- 이지나, (현대 여성을 위한)뷰티 센스, 화신문화사, 1986.

이능희, 태평양 50년사, (주)태평양화학, 1995.
 이은영, 복식의 장학, 교문사, 1983.
 이규태, 입술의 한국학, 기린원, 1988.
 임동권, 한국 민속학론, 집문당, 1982.
 임은모, 메이크업 마케팅, 진한도서, 1999.
 유지나, 변재란, 페미니즘, 영화, 여성, 여성사, 1993.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1.
 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장원, 1995.
 전완길, 한국여인의 생활철학(사리랑), 장원, 1995.
 조효순, 한국복식 풍속사 연구, 일지사, 1988.

2. 논문

권예슬,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0.
 김태미, 한국인의 얼굴 이미지 표현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2.
 김수진,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 석사논문, 1997.
 김선영, 동.서양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논문, 1992.
 김선숙, 유행스타일의 결정과 확산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4.
 금기숙,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 박사논문, 1988.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문화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8.
 김미덕, 현대미술에 있어서 Minimal조각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3.
 김정아, 현대패션에 표현된 미니멀리즘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1999.
 박지현, 미니멀 아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6.
 박윤심, 1950년대 영화의상과 메이크업의 분석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 석사논문, 1999.
 박보영, 한국, 중국, 일본 여성의 색조 화장 문화,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1997.
 변지연, 미니멀리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성신여대 석사논문, 1996.
 송민정, 우리나라 전통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1.

이순자, 우리나라 여인의 머리형태 및 장식에 관한 고찰, 이화여대 석사논문, 1970.

이은임, 화장문화의 전개와 화장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 석사논문, 1999.

이선주,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의 효과와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 석사논문, 1999.

이선영, 미니멀 아트에 있어서 반복성과 장식성에 관한 연구, 대구 효성카톨릭대 석사논문, 1996.

임진희, 현대복식에 표현된 미니멀리즘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1993.

정미경, 우리나라 여인의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88.

최용진, 미니멀 아트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7.

최영경, 한국여성의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7.

하민수, 미니멀리즘의 의미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86.

김정자, 우리나라 여성의 발양에 대한 연구, 복식 6호, 1982.

김은주, 한국 전통화 장품속사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5호, 13호, 1989.

3. 국외서적

The New Oxford Dictiona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Webster's Dictionary, ed. John Gage Allee, Ottenheimer Publishers L.Rowland Warne, *le Costume et la Mode*, Gallimard, 1990.

Arnold Hauser(백락청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현대편), 창작과비평사, 1979.

Bond David(정현숙역), 20세기 패션, 경춘사, 1992.

Dominique P, 화장술의 역사, 시공사, 1998.

Diana Lewis Jewell, *MAKING UP* by REX, Clarkson N, Potter. Inc, 1986.

ElizabethB. Hurlock(임숙자역), 의복의 심리학, 교문사, 1995.

Fabienne S, *MAQUILLAGE*, AGEF, 1986.

Janson H.W(김윤수외역), 예술의 역사, 삼성출판사, 1980.

John Ligget(이영식역), 얼굴문화, 그 예술적 위장, 보고 싶은 책, 1997.

Kenneth B(김기수), 미니멀리즘, 열화당, 1993.

Kevin Aucoin, *MAKING FACE*, NEW YORK, 1997.

Kevin Aucoin, *The Art Of MakeUp*, NEW YORK, 1994.
Lambert R(이석우역), 20세기 미술사, 열화당, 1986.
Lucie E Smith(임영방, 김춘일역), 전후 현대미술, 장학사, 1981.
Mary Quant, *ULTIMATE MAKEUP & BEAUTY*, 1996.
Nathalie chahine, *100 ANS DE BEAUTE*, Atllas S.A. Paris, 1996.
Victoria E(임숙자역), 신체장식, 경춘사.

ABSTRACT

A study on the cosmetic in pratical Minimalism

Lee, SookYeon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Design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I have tried to make a definite decision about characters of minimalism through the investigation on background of minimalism's appearance, it's notion, and on structure characters and then examined the interrelation between minimalism's characters notonly understandig generally base and the aesthetic senses reflected in the literatures and remains concerned with the traditional Korea cosmetic from Yi Dynasty to modern times.

Minimal cosmetic escaped from human body's exaggeration and from exessive ornoment instead of stressing natural beauty. Minimalism that pursues simplicity and purity has somthing in common with the formative beauty of Yi Dynasty traditional cosmetic. Rooting from the tradional idea of the sameness of the spirit and the body, spotless white complexion was highly valued, and it was considered as paramount factor of the beauty. this notion of beauty was reflected in women's daily lives as keeping their face and body neat and clean. This is what we traditionally call 'damjang'(a dressing up of face and body), the very makeup in the traditional sens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n expression

called 'yayong'(a gaudy dressing-up of face and body)which refers to the special way of make-up of the professional women called 'Kiseng' and women who severed in the court. These women made their face white by applying white powder and colored their bright red, which were disapproved and distasted by ordinary women.

The beauty of Yi Dynasty women was focused to the face type, which was more spherical than accidental. and added various conditions as the following: white skin, galic nose and lips red as a cherry, black eyebrow, red cheek. Especially make up for eyebrow wa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part because it creates a totally new shape.

In ealy 20th century with an enlightened civilization, a new way of make up together with a new word 'whajang' were introduced from Japan, In this new make up technique, women learned to use cream as a base before using powder.

In 1970, the western style of make up was approved in public and popularized. Especially in 1971, the first pioneering make-up was made toward the cubic effect of the face coupled with its clean-cut feature. Accordingly, the concept of western beauty was introuduced to Korean beauty one, whitch was focused oval face type, wide and round eyes with double eyelid, the Grecian or garlic nose and small lips.

In the 1980, upon the opportunity of 1988 olympic, the bold expression and individuality are encouraged. The spread of the color tv into almost all homes and development of mass media vave resulted in the various and vivid use of color. After the 1990 the concern of health and the natural protection campaign were growing.

Onconcluding I would like to show make up patterns of minimalism cosmetic.

We need to get out of the fixed idea about "old fation" with recreating Korean peculiar traditional mode in modern cosmetic, rediscovering the beauty of cosmetic and the development of inventive modern cosmetic desing and its possibility through taking a triangular position on Korean cosmetic's peculiarity with modern sense based on the similarity between minimalism's characters and that of Korean informativeness.